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박사학위논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규범의 우위: 관습적 규범과의 비교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14-21387 이 수 현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규범의 우위: 관습적 규범과의 비교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생활과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수 현

이수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박 혜준 (인)
부위원장 최 나야 (인)
위 원 박 유정 (인)
위 원 강 유미 (인)
위 원 이 강 이 (인)

국문초록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규범의 우위: 관습적 규범과의 비교

이 연구는 유아가 사회도덕적 위반 사건에 관해 판단할 때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고,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두 규범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규범을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지 검토하고, 갈등하는 다른 규범 때문에 위반 행동에 대해 더 관대한 판단을 하는 정도가 위반된 규범의 영역에 따라 다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상대적 우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8곳에서 3, 4, 5세 유아 총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일표본 t검정, 혼합모형 반복측정 변량분석, X^2 검정, 주변 동질성 검정을 이용하여 SPSS 20.0 프로그램에서 통계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같았다. 유아는 도덕 위반을 관습 위반보다 더 허용할 수 없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보았으며, 도덕적 규범이 관습적 규범보다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습적 규범 내에서 유아가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과 그렇지 않은 관습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유아는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지도 않았다.

둘째, 유아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서로 갈등할 때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상위의 원칙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같았다. 유아는 관습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도덕 위반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관습 위반은 허용했다. 또한, 관습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도덕 위반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을 때 유아는 도덕적 규범은 맥락과 비교적 무관하게 고수하지만, 관습적 규범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같았다. 즉 유아는 도덕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관습 위반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맥락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훨씬 관대한 판단을 했지만, 도덕 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습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판단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

넷째, 3-5세 유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범 위반에 대하여 더 엄격해지고, 더 정교한 근거로 판단을 정당화하며, 위반의 맥락을 더 많이 고려한 판단을 하였다. 유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역과 상관없이 위반을 더 허용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비추어 진술하였으며, 규범과 무관한 진술은 적게 했다. 3세아보다 4, 5세아는 같은 위반이더라도 위반이 일어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을 더 유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할 뿐 아니라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상위의 원칙으로 고려하며 다른 규범과 갈등할 때에도 더 엄격하게 고수함을 밝혔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규범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해지고 사회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더 정교하게 진술하며 맥락을 고려하여 더 유연하게 판단하였으나,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고 도덕적 규범을 더 우위에 두는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같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유아가 대인적 의무보다는 타인에 대한 처우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며 3세부터 일관적으로 관습적 규범에 대하여 도덕적 규범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밝혔다.

주요어: 사회도덕적 판단, 사회인지적 영역이론, 도덕적 규범, 관습적 규범, 규범 갈등

목 차

Ⅰ.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8
1.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 ····· 8
2.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사건의 속성 ····· 12
1) 사건의 속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 12
(1) 단순 규범 위반에 관한 사회도덕적 판단 ····· 12
(2)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적 판단 ····· 18
2) 사회도덕적 판단 내용의 측정 ····· 21
3) 사건의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판단의 비교 ····· 25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27
1. 연구문제 ····· 27
2. 용어의 정의 ····· 28
1) 사회도덕적 판단 ····· 28
2) 사회도덕적 사건 ····· 29
3) 사회도덕적 사건의 영역 ····· 29

Ⅳ. 연구방법 및 절차 ····· 31
1. 연구대상 ····· 32
2. 연구도구 ····· 34
1)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 34
2) 자료의 처리 ····· 46
3. 연구절차 ····· 48

1) 예비조사 ····· 48
2) 본조사 ····· 49
(1) 실험 설계 ····· 49
(2) 실험 절차 ····· 51
4. 자료 분석 ····· 52

Ⅴ. 결과 및 해석 ····· 54
1.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 51
1) 위반 허용 여부 ····· 51
2) 위반의 심각성 ····· 58
3) 정당화 진술 ····· 60
4) 권위·규칙독립성 ····· 64

2.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68
1) 위반 허용 여부 ····· 68
2) 위반의 심각성 ····· 70
3) 정당화 진술 ····· 71

3.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차이 ····· 76
1) 위반 허용 여부 ····· 76
2) 위반의 심각성 ····· 80
3) 정당화 진술 ····· 83

Ⅵ. 결론 및 제언 ····· 88
1. 결론 및 논의 ····· 88
2. 의의 및 제언 ····· 96

참고문헌 ····· 102
< 부 록 > ····· 112
Abstract ····· 127

표 목 차

<표 4-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구성 ····· 32
<표 4-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3
<표 4-3>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의 개요 ····· 34
<표 4-4> 단일영역사건 에피소드 ····· 36
<표 4-5> 혼합영역사건 에피소드 ····· 49
<표 4-6>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질문 ····· 40
<표 4-7> 정당화 응답의 범주화 기준과 분석 예시 ····· 43
<표 4-8> 자료의 전처리 ····· 47
<표 4-9> 실험 설계 요약 ····· 50
<표 4-10> 실험 절차 요약 ····· 52
<표 5-1>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기술통계 ····· 55
<표 5-2>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 56
<표 5-3>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대응별 비교 및 개체-내 대비 검정 ···· 56
<표 5-4>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 59
<표 5-5>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 59
<표 5-6>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대응별 비교 및 개체-내 대비 검정 ····· 59
<표 5-7> 단순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 62
<표 5-8>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허용 비율): 기술통계 ····· 65
<표 5-9>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 65
<표 5-10>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 66
<표 5-11>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66
<표 5-12>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 개체-내 대비 검정 ····· 66
<표 5-13>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허용 비율: 기술통계 ····· 69
<표 5-14>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 69
<표 5-15>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 71
<표 5-16>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 71
<표 5-17>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 73
<표 5-18> 규범 갈등 상황에서 2차 판단의 응답 변화: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 76
<표 5-19> 속성, 영역, 연령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허용 비율 ····· 78
<표 5-20> 사회도덕적 사건 허용 비율: 속성, 영역, 연령의 효과 ····· 78
<표 5-21> 속성, 영역, 연령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 81
<표 5-22>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속성, 영역, 연령의 효과 ····· 81
<표 5-23> 사회도덕적 사건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의 효과 ····· 84
<표 5-24> 사회도덕적 사건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연령의 효과 ····· 86

그 림 목 차

<그림 4-1> 허용 여부 척도 ····· 42
<그림 4-2> 위반의 심각성 척도 ····· 42
<그림 4-3> 권위·규칙독립성 면접 그림카드 예시 ····· 46
<그림 5-1>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영역, 연령 상호작용 ····· 57
<그림 5-2>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영역, 연령 상호작용 ····· 62
<그림 5-3> 영역과 연령에 따른 단순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 63
<그림 5-4> 영역과 연령에 따른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정당화 진술 ····· 74
<그림 5-5> 사회도덕적 사건의 허용 비율: 속성, 영역 상호작용 ····· 79
<그림 5-6> 사회도덕적 사건의 허용 비율: 속성, 연령 상호작용 ····· 80
<그림 5-7>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속성, 연령 상호작용 ····· 82
<그림 5-8>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 84
<그림 5-9>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영역별 양상 ····· 85
<그림 5-10>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연령별 양상 ····· 86

Ⅰ. 문제제기

유아기 사회화의 핵심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다. 개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의 수많은 암묵적, 명시적 규범을 습득함으로써 유아는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사회적 규범 중 어떤 규범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와 같은 도덕적 규범이다. 이는 주로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 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문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반면 어떤 규범은 '식사는 수저로 해야 한다.', '연장자에게는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한다.'와 같은 관습적 규범이다. 관습적 규범은 주로 권위와 관행에 관한 것으로,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비교적 유연하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토대로 개인은 주어진 행동을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도덕적 판단이라고 부른다. 도덕 위반(moral transgression)은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관습 위반(conventional transgression)은 관습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도덕 위반이나 관습 위반을 목격했을 때 유아가 내리는 사회도덕적 판단은 유아가 규범을 습득하고 이해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도덕적 판단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발달 초기에는 성인의 규제에 의한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을 통해 금지된 행동을 조절하지만, 이것이 2.5세에서 3세 사이 내적 조절(internal regulation)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유아는 양육자가 없을 때도 양육자가 제시한 규범에 영향을 받고 이를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Emde, 1988; Emde & Buchsbaume, 1990; Kochanska, 1993). 이에 더해, 3세 유아는 양육자의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Grusec & Goodnow, 1994).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3세 유아에게 '도덕적 자아'가 있다고 언급했다(Emde, Biringen, Clyman, & Oppenheim, 1991). 즉, 3세는 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살펴볼 때 사회인지적 영역 관점(Socio-cognitive domain perspective, 또는 영역 이론)은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Smetana, 2006; Turiel, 2006). 이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기부터 유아의 사회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영역으로 나뉘어서 구조화된다. 이때 개인적 영역은 사회적 규범에 영향받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규범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도덕적, 관습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각 영역의 규범을 구분하고 둘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유아의 능력을 주된 관심사로 탐색했다(e.g., Ball, Smetana, & Sturge-Apple, 2017; Hollos, Leis, & Turiel, 1986; Killen, McGothlin, & Lee-Kim, 2002).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가 어린 시기부터 관습 위반보다 도덕 위반을 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관습적 규범과 달리 도덕적 규범은 권위자의 감독이나 관련된 규칙이 없을 때도 고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유아가 비도덕적 고려사항보다 도덕적 고려사항을 더 중시하는 유능한 도덕적 존재라고 주장했다(Nucci, 2008). 이러한 경향은 34개월 경에도 관찰되며(Smetana & Braeges, 1990; Smetana et al., 2012)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지표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Smetana, 2006; Turiel, 1983, 2006; Tisak & Turiel, 1988) 6세 이후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Turiel, 2008a). 따라서 3세부터 학령기 전까지의 유아기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관한 이해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에 관한 유아의 판단은 문화권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이다. 브라질(Nucci, Camino, & Sapiro, 1996), 버진 아일랜드(Nucci, Turiel & Encarnacion-Gawrych, 1983), 인도(Bersoff & Miller, 1993), 나이지리아(Hollos et al., 1986), 홍콩(Yau & Smetana, 2003)의 유아는 도덕 위반을 관습 위반보다 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덕적 규범은 권위자의 감독이나 관련된 규칙이 없어도 관습적 규범보다 강제성이 더 유지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스라엘(Nisan, 1984, 1987), 한국(박영신, 1999, 2001, 2006; 오영희, 박영신, 1998; 최보

가, 송미화, 1998), 일본(Naito, 1991; Naito, 1994에서 재인용)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응답에서 이와 같은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의 질적인 차이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 주요한 지표인 권위, 규칙독립성에서 유아가 두 규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반복되었다(최보가, 송미화, 1998; 박영신, 1999, 2001, 2006; Naito, 1991).

이와 관련하여, 사회인지적 영역이론에서 제시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개념과 두 규범 간 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Witherell & Edwards, 1991). 도덕적 규범이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주장(Shweder, Mahapatra, & Miller, 1990; Miller, 1991, 1994)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Gilligan, 1982)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Miller (1994) 등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 규범이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대인적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된다고 하였다(Miller, 1994; Miller & Bersoff, 1992). 또한, 영역 이론에서 관습적 규범이라고 규정했던 권위에 대한 충성과 내집단 충성, 순결성 등이 사실은 타고난 도덕적 직관이며 문화권에 따라 도덕적 규범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Graham et al., 2013).

만약 권위자에 대한 충성이 문화권에 따라 도덕적 규범이기도 하다면(Graham et al., 2013), 연장자 존경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상 한국의 유아가 성인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 대한 경험적 검증 결과는 서로 불일치하는데, 유아가 '선생님께 인사 안 하기' 규범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한다는 결과도 있고(Song et al., 1987) 그렇지 않다는 결과(박영신, 1999)도 있다. 한편 관습 위반이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클 경우, 유아가 이를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김상윤, 2000; 박영신, 2001; 송명자, 1992). 그러나 4세아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관습과 그렇지 않은 관습을 구분하지 않았고, 전자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지도 않았다(박영신, 2001).

요컨대 선행 연구에서는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관습 간 구분이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실제로 다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적 의무가 도덕적 규범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는 이론적 논의(Miller, 1994; Miller & Bersoff, 1992)를 고려하면, 집단주의 맥락에서는 유아가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 관습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관습적 규범은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대인관습)과 그렇지 않은 관습(비대인관습)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유아의 판단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관습적 규범 중 '선생님께 존댓말 하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대인관습이지만, '수저로 밥 먹기'는 특정인에 대한 의무와 무관한 생활 습관으로서 비대인관습이다.

대인관습은 비대인관습과 달리 상호 합의된 상황에서 위반될 경우 상대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심리적 위해, 즉 도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장자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존대어 관습이 없는 문화권에서는 같은 행동이 심리적 위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습과 비대인관습을 구분하여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인관습 위반에 관한 판단이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도덕 위반에 관한 응답 양상과 더욱 일치한다면,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관습 위반보다는 도덕 위반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비대인관습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두 종류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의 도덕-관습 구분이 한국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도덕-관습 구분을 밝히지 못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규범의 권위, 규칙독립성 판단을 이분법적으로 수집하였다(박영신, 2001, 2006; 최보가, 송미화, 1998).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 규범을 강제하는 규칙이나 권위자의 감독으로부

터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은 규범은 실재하기 어려우므로, 권위, 규칙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다', 혹은 '독립적이지 않다'로 측정하는 것보다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나타내는 연속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둘째, 규범의 권위, 규칙독립성 판단을 수집할 때 관련된 권위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하면 안 된다는 약속은 없어', '만약 ~하지 말라는 규칙이 없다면' 등 구두로만 제시하였다(박영신, 1999; 최보가, 송미화, 1998). 그러나 유아기 추상적 사고의 한계를 고려하면, 권위, 규칙이 없는 상황을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하고(Ball et al., 2017; Jambon & Smetana, 2018) 유아가 이를 보면서 사회도덕적 판단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선행 연구에서는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비교함으로써 유아가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규범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방법은,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을 탐색하는 것이다. 권위자가 비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타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관습적 규범을 위반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 예인데, 이 경우 유아는 갈등하는 규범을 조정하고 어디에 무게를 둘지 판단해야 한다(Smetana, 2006).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 규범이 무엇인지,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을 때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는 규범과 비교적 완고하게 적용하는 규범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유아의 규범 우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대한 유아의 규범 우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단순 규범 위반)에 관한 유아의 판단과 더불어,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유아의 판단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규범 갈등 상황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에게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는 관습적 상황을 제시한 뒤 이에 관한 아동의 응답을 수집하였다(최진아, 성지현, 2018; Helwig & Jasiobedzka, 2001; Killen, 1990; Killen, Pisacane, Lee-Kim, & Ardila-Rey, 2001; Laupa & Turiel, 1986; Theimer, Killen, & Stangor, 2001). 이들 연구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

는 관습적 상황을 비판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아동의 응답을 바탕으로 아동이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우선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내리는 사회도덕적 판단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지, 또 서로 다른 사회적 개념을 조정하는 아동의 능력에 일관적인 발달적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탐색 된 바가 적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나 관습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유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습 위반을 허용한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덕적 규범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과 관습적 규범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을 모두 포함하여 3-5세 유아의 판단을 탐색하고 응답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규범 갈등 상황에 관한 연구(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는 성-전형적 관습과 공정성 문제(사회적 배제)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습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을 사용해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유아의 판단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일관적으로 우위에 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규범 우위는 이처럼 규범 갈등 상황에서 어떤 규범을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규범 갈등 상황에서 특정 규범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엄격하게 고수하는 정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어떤 영역의 가치를 위해 다른 영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위반에 관한 유아의 판단을 단순 규범 위반에 관한 판단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Smetana, 2013). 가령 똑같이 어린이집 규칙을 어기는 사건이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친구를 위한 행동이었을 때에는 허용 가능한 일이라고 응답한다면, 이 유아는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주어진 관습

적 규범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선행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상위 원칙으로 고려한다면(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 갈등하는 규범을 고려하여 위반 행동에 대해 더 관대한 판단을 하는 양상에서도 도덕적 규범의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유아의 관습 위반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도덕적 가치 준수를 위한 것이었을 때에는 큰 폭으로 관대해지지만, 도덕 위반에 관한 판단은 관습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을 때에도 그 변화의 폭이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규범 우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유아기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상대적 우위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 위반, 관습 위반에 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비교하고 발달적 변화를 탐색한다. 이때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유아가 일관적으로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 규범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령차를 탐색한다. 셋째, 같은 위반이 단순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일 때 유아의 판단을 비교한다. 이때 도덕적 규범은 갈등하는 관습적 규범 유무와 무관하게 고수하지만, 관습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과 갈등할 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영역 이론에서 규정한 도덕-관습의 구분, 특히 도덕적 규범의 정의에 대해 제기된 이론적 논쟁에 접근하고자 한다. 대인·비대인관습을 포함한 분석에서 유아가 보이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우위를 분석함으로써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관습 구분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유아기에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우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규범 중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가 우선시하는 규범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보는 효과적이면서도 발달에 적합한 유아기 사회화와 이를 위한 성인의 역할에 대해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의 이론적 배경을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덕적·관습적 규범의 구분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논한다. 이후 유아기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1.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은 인지발달적 접근을 토대로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이론적 입장 중 하나이다(Turiel, 2006).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인지발달적 접근은 정신분석 및 학습이론 관점과는 달리 반영과 추상화를 통한 도덕적 지식의 구조화를 강조한다. Piaget (1932)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러한 접근은 이후 Kohlberg (1971)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 이론으로 확장되었다. Piaget와 Kohlberg는 유아기의 도덕적 사고가 처벌과 권위자의 명령에 의존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와 권리, 타인의 안녕에 관한 진정한 도덕적 원칙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은 여러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생애 초기부터 유아의 사회적 지식과 사고가 권위, 규칙과 같은 관습적 규범과 정의, 권리와 같은 도덕적 규범의 구분되는 영역으로 구조화된다고 제시하였다(Turiel, 1983). 이때 도덕적 영역(moral domain)은 인간이 공정성, 타인의 안녕, 평등, 권리에 따라 타인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원칙이 개입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관습적 영역(conventional domain)은 관습, 전통, 의식 등 사회적 집단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행동적 규제가 개입하는 영역이다.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에 따르면, 도덕과 사회적 관습이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 지식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공존하며 개별적인 발달 궤적을 따른다(Smetana, 2006; Turiel, 2008b). 영역 이론의 초기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식에서 도덕적 영역과 관습적 영역이 구분된다고 제시

하였으며(Nucci & Turiel, 1978; Turiel, 1983), 이후에는 개인적 선택과 선호의 영역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1) 정의·안녕·권리에 관한 도덕적 영역 (2) 권위·관습·사회 질서와 같은 관습적 영역 (3) 사생활·신체에 대한 통제권·개인적 선택 및 선호와 같은 개인적 영역(personal domain)의 세 영역이 제시되었다(Nucci, 1981). 여기서 개인적 영역은 규범과 규제가 아닌 개인적 자율성과 목표에 따라 지배받는 영역이다(Killen et al., 2002). 즉, 도덕적 영역과 관습적 영역이 사회적 규범을 그 질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이라면, 개인적 영역은 이에 상응하여 규범에 영향받지 않는 상대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 규범의 영역 간 구분,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 영역 중에서도 도덕적, 관습적 영역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사회도덕적 영역 이론에서 규정한 도덕적 규범의 정의는 인지발달적 접근에서의 전통을 따른다. 인지발달적 접근에서는 도덕성의 핵심을 Kant, Rawls, Mill의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Turiel, 2006; Nussbaum, 1999). 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치의 근원은 개인이 가진 도덕적 선택의 힘에 있다. 이러한 각 개인의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이 사회와 정치에 대하여 특정한 형태의 처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부여한다(Nussbaum,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성은 개인의 안녕, 정의, 권리, 인간에 대한 정당한 처우에 관한 것이며, 특정 집단(사회와 문화)의 관습, 전통과는 구분된다(Turiel, 2006). 영역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전통을 따르는 이론적 관점들(Dworkin, 1977; Gewirth, 1978; Habermas, 1990; Rawls, 1971)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Smetana, 2006). 이러한 입장은 문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적 규범을 상정하고 이것을 특정한 사회적 집단 내서만 적용되는 관습적 규범과 구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지 않는 이론적 입장(Damasio, 1994, 2003; Haidt, 2001)과 대비된다.

경험적으로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의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

가 축적되어있다. Killen 등(2002)은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에서 제시하는 영역 간 구분을 검증한 85개의 선행 연구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양한 국가(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일본, 나이지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버진 아일랜드, 잠비아),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다양한 사회 집단, 다양한 거주지(도시와 지방),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공정성 및 대인적 의무(interpersonal obligation), 집단 기능(group functioning), 그리고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라는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정성과 대인적 의무는 타인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관한 것으로 도덕적 기준에 해당하며, 집단 기능은 사회적 관습의 근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로 제시한 26개의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권의 아동이 도덕 위반은 맥락과 무관하게 잘못된 행동이며 이는 관련된 권위나 규칙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Turiel, 2006). 예를 들어,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를 밀어서 떨어트리는 것과 같은 도덕 위반을 목격했을 때 유아는 행위의 직접적 결과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Turiel, 1983). 반면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관습 위반을 목격했을 때는 그 행동에 내재하는 위해나 불공정과 같은 직접적 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유아는 사건 외부의 다른 요인을 통해 해당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추론해야 한다. 성인 권위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규칙에 대한 위반이나 권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여기고 이에 걸맞은 반응을 보인다면, 유아는 이러한 사건 외부의 반응을 통해 이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된다(Helwig & Turiel, 2011; Nucci & Turiel, 1978).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도덕적 판단이다. 사회도덕적 판단(Sociomoral judgment)은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따라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Turiel, 2006)으로, 사회도덕적 판단의 내용을 다양한 지표에서 분석함으로써 판

단의 주체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회도덕적 판단을 친사회적 도덕 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 Eisenberg, 1982)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포괄하는 규범의 범위와 관심을 두는 사고 내용의 측면에서 더 상위개념이다.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벌, 규칙, 권위, 의무 등 외적 규제가 강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자의 욕구와 타인의 필요가 갈등할 때 이루어지는 추론을 의미한다(Eisenberg, 1982). 이때 행위자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도덕 위반(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위해나 공정성의 위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규칙, 권위 등 관습적 규범이 없는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에 관습적 규범과는 무관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도덕적 판단이 포함하는 규범의 범위가 친사회적 도덕 추론보다 더 넓다. 또한,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주어진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친사회적으로 사고하는가, 즉 사고의 과정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도덕적 판단은 옳고 그름의 평가와 평가에 이르게 되는 추론의 과정을 포괄한다. 따라서 사회도덕적 판단은 친사회적 도덕 추론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은 유아의 사회도덕적 사고를 영역에 따라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단일한 발달 궤적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 이론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Smetana, 2006).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사고가 어느 수준의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주어진 맥락에서 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영역 중 유아에게 두드러지는 영역이 무엇이며 이것이 유아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범 간 우위를 살피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영역 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도 도덕적, 관습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2.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사건의 속성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종류의 분석이 필요하다(Helwig & Turiel 2011). 하나는 영역 내 판단과 추론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영역이 조정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이때 영역 내 판단과 추론에 대한 이해는 특정 영역의 규범이 위반되는 사건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영역 간 조정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관한 유아의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처럼 위반 사건이 일반적인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적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을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순 규범 위반이라 칭한다.

1) 사건의 속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1) 단순 규범 위반에 관한 사회도덕적 판단

단순 규범 위반이란 도덕적 규범 또는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사회도덕적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과 갈등하는 다른 가치나 규범은 없으며 주인공의 개인적 욕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규범 위반(Typical event; Helwig & Turiel, 2011)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네가 타고 싶어서 먼저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를 밀치는 사건(도덕 위반)이나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밥을 손으로 먹는 사건(관습 위반)이 단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한 가지 영역만 개입된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일영역사건(Single-domain even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elwig & Turiel, 2011).

단순 규범 위반에서 도덕-관습 구분은 학령 전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한다. 유아는 만 2세에는 전형적인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4-5세가 되면 다양한 지표에서 일관적으로 구분한다(Smetana & Braeges, 1990). 2세에서 5세 사이 연령에서는 지표의 종류나 제시된 사건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구분한다(Helwig & Turiel, 2011). 34개월 유아는 부분적으로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을 구분하기 시작하며 3세에는 도덕적 규범이 모든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관습적 규범은 맥락에 따라 가변적임을 이해한다(Smetana & Braeges, 1990).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 연구에서, 유아는 3.4세 시기와 3.9세 시기 모두에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 불변성, 일반화 가능성,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의 수준의 다섯 개 지표에서 구분하였다(Smetana et al., 2012). 특히 6개월의 시차가 나는 이 시기 동안, 도덕적 규범의 강제성이 권위자의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유아의 판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가 4세가 되면 도덕적 규범의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에 대해 더욱 확장된 이해를 보인다는 보고(Smetana & Braeges, 1990)와도 일치한다. 3, 4, 5세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한다는 것은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Killen & Smetana, 1999; Nucci, 1981; Nucci & Turiel, 1978; Smetana, 1981, 2006; Smetana & Braeges, 1990; Smetana et al., 2012; Turiel, 1983, 2008a; Yau & Smetana, 2003). 또한, 두 규범 간 구분은 6세 이상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Turiel, 2008b). 이후 연령에서의 발달적 변화는 영역 간 구분보다는 개별 영역 내에서의 판단의 질에서 나타난다(Turiel. 2008b). 예를 들어 도덕 위반에 대한 6-10세 아동의 판단은 초기에는 신체적 위해나 안녕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위해, 공정성, 정의, 동등한 처우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Davidson, Turiel, & Black, 1983).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 공정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평(equity)을 고려하게 되고, 공평과

평등(equality)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Damon, 197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대조적으로 유아가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일관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6-7세아와 10-11세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시와 키부츠에 거주하는 유대인 아동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였으나, 전통 아랍인 거주지에 사는 아동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Nisan, 1987). 또한, 무슬림 아동과 유대인 아동은 남아와 여아가 함께 목욕할 수 없다는 관습적 규범을 도덕적 규범과 유사하게 이해하였으나, 키부츠에 사는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Nisan, 1984).

한편, 한국의 3세 유아는 위반의 심각성과 적절 처벌의 수준에서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나 허용 여부와 규칙독립성, 권위독립성의 측면에서는 구분하지 못하였다(박영신, 1999; 최보가, 송미화, 1998). 또한, 일반화 가능성에서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였다(박영신, 1999). 4,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판단 지표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절한 처벌의 수준과 정당화 진술에서 한국의 4, 5세 유아는 두 규범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영신, 2001, 2006; 최보가, 송미화, 1998). 그러나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 주요한 이론적 지표인 규칙독립성, 권위독립성,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 5세 유아가 두 규범을 구분한다는 보고와 구분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혼재하였으며, 연구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증거를 발견한 지표가 서로 달랐다(박영신, 2001, 2006; 최보가, 송미화, 1998; Song et al., 1987). 6세아와 8세아가 허용 여부,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의 지표에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영신, 2001).

이에 더해, 일본과 미국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10세, 12세 아동과 달리 일본의 10, 12세 아동이 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한다고 보고하였다(Naito, 1991; Naito, 1994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관련된 규칙이 없을 때 '수업시간에 껌 씹기' 행동을 허용할 수 있는지 아동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 미국 아동은 10세아의

12.5%, 12세아의 0%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일본 아동은 10세아 100%, 12세아 91.7%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관습적 규범을 도덕적 규범과 구분하는 특징인 권위, 규칙에 대한 의존성을 이해하지 못한 응답이다.

이처럼 영역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도덕적 규범의 정의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심리학 문헌에서는 도덕성의 개념이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한다고 보았다(Miller, 1994). 이에 따르면 영역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권리와 정의를 중심으로 규정된 도덕적 규범은 서구 개인주의 문화와 민주주의의 산물이며(Shweder et al., 1990),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도덕적 규범은 대인적 의무와 권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Nisan (1987)은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비일관적인 아동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토대로, 적어도 일부 도덕적 규범은 문화에 의존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에서는 타인에 대한 해악, 정의, 권리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내집단 충성, 권위와 존중, 신성함과 순결 등도 모두 도덕적 규범에 포함된다고 본다(Graham et al., 2013). 이러한 개념들은 타고난 인간의 도덕적 직관으로 진화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이 도덕적 규범으로 내재화되는지는 문화적인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Graham et al., 2013).

유사한 맥락에서 Song 등(1987)과 송명자, 김상윤(1987)은 한국의 유아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련된 규범을 도덕적 규범으로 인지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험적 검증에서 학령 전 유아는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련된 규범과 다른 관습적 규범을 지표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구분하거나(박영신, 2001) 전혀 구분하지 않았으며(박영신, 1999), 일반적인 관습과 도덕적 규범 간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박영신, 1999, 2001). 한편, 박영신(2001)은 유아가 관습 위반이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을 유사하게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에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명백한 관습과 그렇지 않은 관습을 구분하여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분석하

였는데, 6세아는 일반화 가능성, 권위독립성, 위반의 심각성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두 종류의 관습을 구분하였으나 4세아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즉,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는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관습 간 구분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관습적 규범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그 규범이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다. 관습적 규범 중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규범이 있는 한편, 특정인과의 상호작용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생활 양식을 규정하는 규범이 있다. 전자와 같이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 관습의 위반은 다음의 이유로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유아에게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첫째,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적 의무가 도덕적 규범의 주축을 이룬다는 이론적 논의가 있다(Miller, 1994). 유아에게 대인적 의무가 중요한 규범으로 두드러지는 정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인도의 학령기 아동은 미국의 동일 연령 아동과 달리 대인적 의무를 도덕적 정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Miller & Bersoff, 1992). 또한, 불공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도덕적 판단을 요구하였을 때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동은 대인 관계 맥락을 바탕으로 판단을 정당화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의 아동은 대인 관계 맥락과 상관없이 개인의 수행을 바탕으로 판단을 정당화한다(Carson & Banuazizi, 2008). 이를 고려하면 사회도덕적 상황에서 대인적 의무와 대인 관계 맥락이 유아에게 두드러지는 정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 문화권인 한국의 유아 역시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관습적 규범 중에서도 대인적 의무에 관한 관습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상황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의도적인 심리적 위해, 즉 도덕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도덕적 영역이 타인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관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Turiel, 2006), 관습적 규범으로 합의된 대인적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는 행동은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도덕 위반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영역 구분이 모호한 사건을 제시했을 때 사건의 도덕적 요소에 집중하고 이를 도덕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유아는, 이를 관습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유아에 비해 해당 위반 행동을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Smetana,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관습 위반은 도덕적 요소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의 유아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 있는 유아보다 대인관습 위반의 도덕적 결과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고맥락과 저맥락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이론에 따르면(Nam, 2015)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에서는 전달자의 의도나 의미가 몸짓, 사회적인 관습, 목소리의 톤 등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암묵적인 맥락에 의해 많은 부분 전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는 같은 관습 위반에 대해서도 저맥락 의사소통 문화보다 위반된 규범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의도와 의미가 더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 때문에 비교적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권에 해당하는 한국(Nam, 2015)의 유아는 도덕적 결과를 동반하는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더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업시간에 껌을 씹는 행동을 미국의 아동은 단순한 관습적 규범의 위반으로 보지만, 일본의 아동은 선생님에게 미치는 심리적 위해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Naito (1994)의 논의와도 같은 맥락이다.

대인관습 위반은 특정인에 대한 위해라는 도덕적 결과를 동반하지만, 이것이 도덕 위반과 다른 점은 이 관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만 그 도덕적 결과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구 사회에서는 연장자를 마주하고도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대에게 심리적 위해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인적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관습 위반을 분류할 때에는 사회적 맥락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친구에게 인사하지 않기'는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에서는 대인관습 위반이나, '이 교실은 친

구에게 인사하지 않기로 한 교실이다'라는 예외적 맥락을 추가하면 이 규범이 규정한 대인적 의무가 사라지므로 대인관습 위반이 아닌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신발 벗기'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비대인 관습 위반이나,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기로 약속한 엄마가 보고 계시다'라는 예외적 맥락을 추가하면 주어진 규범에 상대와의 약속이라는 대인적 의무가 부여되면서 대인관습 위반이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습적 규범을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때 규범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회적 맥락만을 포함하고 여타의 맥락은 혼입하지 않는다.

(2)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적 판단

정직, 권리, 사회적 배제 등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도덕적인 고려사항과 더불어 맥락 속의 다양한 비도덕적 고려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Turiel, 2015).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규범이 동시에 등장하여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갈등하는 요소들을 조정하고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 연령에 따른 개인차가 크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개 이상 영역의 요소가 혼재하는 혼합영역사건(mixed-domain event; Crain & Tisak, 1995)의 일종으로, 개인이 각 영역의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다(Smetana, 2006). 규범 갈등 상황의 예시로는 '친구와 싸우라'라는 권위자의 명령이 주어지는 상황(Laupa & Turiel, 1986)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라는 도덕적 규범과 권위라는 관습적 규범이 모두 등장하여 갈등하고 있다.

규범 갈등 상황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한 연구로는 공정성과 성-전형적(gender-stereotypical) 관습이 갈등할 때 4세아와(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 5세아(Killen et al., 2001)의

판단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 전형적 놀이(인형 놀이와 트럭 놀이)와 성 전형적 역할극(선생님 놀이, 소방관 놀이)에서 성별을 이유로 친구를 놀이에서 배제하는 행동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수집하였다. 4세아와 5세아는 모두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유아가 성-전형적 관습보다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즉 사회적 배제)에 더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는 평등과 공정성을 언급하는 도덕적 진술로 그러한 판단을 정당화하였다(Theimer et al., 2001). 한국의 5-6세아를 대상으로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최진아, 성지현, 2018).

이들 연구를 제외하고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 3, 5학년 아동은 순서 지키기나 싸우지 않기 등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래 권위자와 성인 권위자의 요청에는 순응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계속 싸우라'라는 권위자의 요청은 거부했다(Laupa & Turiel, 1986). 이러한 응답의 경향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같게 나타났다. 또한, 6-12세 아동의 대다수는 집단 질서 유지나 권위자를 위해 타인을 향한 위해를 허용하거나 불공정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Killen, 1990). 즉, 관습적 가치를 위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때 이러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진술에서 연령차가 있는데, 8세 이상의 아동은 도덕 위반을 막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적이라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추상적 진술을 했다. 반면 6세 아동은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6세아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클수록 이를 더 중대하게 여기고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높은 연령에서는 위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위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판단의 세부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권위보다 도덕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모든 연령에서 같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한 법과 정의롭지 않은 법에 관한 판단을 수집하였다(Helwig & Jasiobedzka, 2001). 공익을 위한 법은

교통법, 백신 접종 관련 법, 1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관련 법으로 제시되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법,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법,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별 법이었다. 연구 결과 6-11세 아동은 연령과 상관없이 특정인을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는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이 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이 갈등할 때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더 상위의 원칙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을 탐색한 기존 연구는 4, 5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이 이미 2.5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Smetana & Braeges, 1990) 더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도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관습적 상황만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유아의 응답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상황에 관한 유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덕 준수 관습 위반과 관습 준수 도덕 위반에 대한 응답을 모두 수집하고, 특정 영역의 규범에 대한 우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애 초기 영아가 지닌 도덕적 지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유아가 3세 이하의 어린 시기부터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4.5개월 영아는 방해자(hinderer)보다 돕는 자(helper)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며(Hamlin & Wynn, 2011), 5개월 영아는 방해자를 처벌하는 '적절한 반사회적 인물'을 방해자를 돕는 '부적절한 친사회적 인물'보다 더 선호한다(Hamlin, Wynn, Bloom, & Mahajan, 2011). 10개월이 되면 영아는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친사회적인 의도를 가진 인물을 선호한다(Hamlin, 2013). 즉, 영아는 타인을 어떻게 처우하는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물을 평가하고, 타인을 돕거나 타인에게 호의를 보이는 인물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24개월 영아는 어려움에 처한

상대를 돕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모의 존재나 격려와 무관하며(Warneken & Tomasello, 2013). 외부적 보상이 오히려 20개월 영아의 이타적 경향성을 저해하기도 한다(Warneken & Tomasello, 2014). 이를 통해 보면 아동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타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행동에 민감하며 이것이 외부적 규제나 규칙과는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기가 기관 생활을 처음 경험하면서 관습적 규범에 급격하게 많이 노출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뚜렷하게 우위에 두지 않거나, 오히려 관습적 규범을 도덕적 규범보다 우위에 둘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우위가 유아기에 반드시 선형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다가, 기관 적응 과정에서 관습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과도기를 거쳐, 학령기 직전에는 학령기 발달 양상과 유사하게 도덕적 규범을 더 우선시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규범을 더 상위의 원칙으로 고려하는지는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2) 사회도덕적 판단 내용의 측정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은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또는 사회적 사건 면접; Social event interview)이라 일컫는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통해 측정한다. 이는 인지 기저에 있는 추론과 판단의 과정을 사정하기 위해 Piaget (1932)가 고안한 것으로, Smetana와 동료들이 아동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Smetana, 1981; Smetana & Brages, 1990) 이후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된 방법이다(e. g., 박영신, 2001; Ball et al., 2017; Jambon & Smetana, 2018).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에서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사건을 유아에게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수집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덕 위반의 예시는 물

리적 해(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 심리적 해(놀리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그리고 공정성 또는 권리의 침해(공정하게 나누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부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Turiel, 2008a). 한편 관습 위반은 옷 입는 방식이나 식사 예절, 권위자에 대한 예의범절과 같이 사회적 조화를 위한 규칙들을 위반하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Smetana, 2006). 주된 방법은 아동의 준거 판단(Criterion judgment)을 분석하는 것이다. 준거란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는 다양한 차원으로, 규칙독립성(Rule independence), 권위독립성(Authority independence), 정당화(Justification), 불변성(Unalterability),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 도의적 의무(Ethical obligation) 등이다. 규칙독립성은 관련된 규칙이 없을 때도 그 규범이 유효하다는 판단의 정도이다. 권위독립성은 권위자가 그 행위를 감독하지 않을 때라도 규범이 유효하다는 판단의 정도이다. 정당화는 해당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유아의 응답이다. 불변성은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이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며, 일반화 가능성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도 그러한 규범이 적용된다는 판단의 정도이다. 도의적 의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의 정도이다.

도덕적 규범은 관련된 규칙이 없거나 권위자가 보고 있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서 변화될 수 없고, 모든 맥락에서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도덕적 규범은 그것이 타인의 안녕을 보장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반면 관습적 규범은 관련된 규칙이 없거나 권위자의 감독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고, 바뀔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적 규범은 권위와 사회적 규칙으로 정당화된다. 관련 연구에서는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에 대해 아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관적으로 응답하는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의 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관련 지표를 모두 탐색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탐색하였다. 이 중에서도 규칙독립성, 권위독립성, 정당화 진술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선행 연구에서 핵심적인 준거로 탐색해왔다(Ball et al., 2017; Yao & Smetana, 2003). 규칙독립성과 권위독립성은 '어린이집에 그런 규칙이 없는 경우',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 유아에게 비교적 친숙한 방식으로 응답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화 가능성, 도의적 의무, 불변성은 그 내용이 더욱 추상적이어서 유아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위반의 허용 여부를 물어본 뒤 위반의 심각성과 적절한 처벌의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준거 판단 분석에 더하여 사용되는 부수적인 방법이다(박영신, 2001; Smetana, 2006). 일반적으로 아동은 도덕 위반을 관습 위반보다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더 심각한 잘못이며,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을 준거 판단과 더불어 부수적인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규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내리는 사회도덕적 판단은 주로 도덕적 규범이 어겨지는 관습적 상황이나 규범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지, 그러한 관습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아동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성-전형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 공정성을 위배하는 사회적 배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것이 괜찮은지, 옳지 않은지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법이나 권위자의 요청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이를 어겨도 되는지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이분법적으로 수집하였다(Helwig & Jasiobedzka, 2001; Killen, 1990).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사회도덕적 판단의 측정 방법이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확보된 것과 달리,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측정은 이를 시도한 연구가 소수일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대부분 응답을 이분법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는 이들 연구에서 연령차를 포착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규범 갈등 상황에 관한 연구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각각 성-전형적 관습과 놀이상황에서의 배제(공정성) 측면에서만 탐색했기 때문에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어떤 규범에 우위를 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인, 비대인관습과 타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위해, 공정성 등 도덕적 규범을 포괄하였을 때도 특정한 영역의 규범에 대해 일관적인 지향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 특정 규범에 대한 유아의 우세반응은 두 영역 중 유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영역을 나타낼 수도 있다(Smetana, 2006). 이와 같은 사고의 과정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유아의 진술인 정당화 진술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 만약 유아의 정당화 진술에서 두 규범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나타난다면, 유아의 판단은 규범 우위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두 규범 중 한 규범만 언급하며 판단을 정당화할 경우, 유아가 규범 갈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규범만을 인지하여 이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저로 밥을 먹기 위해 친구의 수저를 가져온 사건에 대해 유아가 '아무리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해도 친구 것을 뺏으면 안 되니까' 등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모두 나타나는 진술을 한다면 이 유아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조정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구 것을 빼앗았으니까' 등 도덕적 규범만을 언급한다면, 유아가 주어진 관습적 규범('식사는 수저로 해야 한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언급하지 않은 사건 정보를 다시 제시하며 상기시킨 다음(예: '그렇지만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

는데?') 판단을 재수집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유아의 재인 기억과 단기 기억은 재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면 향상되기 때문이다(Fagan, 1978; Hagen & Kail, 1973).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당화 진술을 분석하여 유아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규범에 관해 추가적인 사건 정보를 제시하고, 유아의 판단을 재수집하여 유아의 응답이 규범 갈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확실시하고자 한다.

3) 사건의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판단의 비교

인간이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도덕적 추론 발달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문제이다(Smetana, 2006). 그러나 규범 갈등 상황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유아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위해 특정 영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유아가 기존에 그 규범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아가 '친구를 빨리 도와주러 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행동'을 허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을 때, 이러한 응답만을 가지고 타인의 심리적 안녕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위해 관습적 규범의 가치를 높은 정도로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아가 기존에 '실내에서 신발 벗기'라는 관습적 규범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이 규범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포기한 것인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친구를 돕기 위해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간 것은 허용할 수 있으며 별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즉, 더 관대한 판단을 한다면) 이는 도덕적 행동을 위해 관습적 가치를 포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아가 원래 이 규범을 중요한 규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새로운 맥락과 무관하게 여전히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관습적 가치를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선행 연구에서는 한 가지 영역만 개입된 사건과 여러 영역이 개입된 사건에 관한 판단을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Smetana, 2013).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규범 갈등 상황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규범 우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하는 규범을 고려해서 규범 위반에 더 관대해지는 정도 또한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더 상위에 두는 유아는, 도덕 위반이 관습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엄격한 판단을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위한 관습 위반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아는 선생님의 지시나 어린이집 규칙과 같은 관습적 규범은 친구의 안녕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나, 타인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도덕적 규범은 설령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권위나 어린이집 규칙이 위반되더라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같은 위반 사건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위반일 때 유아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유아가 갈등하는 규범을 고려하여 사회도덕적 판단을 얼마나 더 관대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판단이 다른 정도가 영역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규범 간 우위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지 확인한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관련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유아의 도덕적, 관습적 규범 구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도덕적 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와, 대인관습의 위반이 도덕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관습적 규범을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유아가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을 구분하는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적 판단에 관한 선행 연구가 대부분 학령기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기 발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위반에 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지 탐색한다. 셋째, 갈등하는 다른 규범 때문에 위반 행동에 관해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정도가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한 연구가 거의 없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같은 규범 위반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때를 비교한다. 이때 규범 갈등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의 위반 행동에 관해 더 관대해지는 정도가 준수되거나 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은 규범의 영역(도덕 위반, 대인관습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과 유아의 연령(3, 4, 5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은 규범의 영역(관습 준수 도덕 위반, 도덕 준수 관습 위반)과 유아의 연령(3, 4, 5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규범 위반이 단순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위반일 때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차이는 규범의 영역(도덕 위반, 관습 위반)과 유아의 연령(3, 4, 5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도덕적 판단(허용 여부, 위반의 심각성, 정당화, 권위·규칙독립성), 사회도덕적 사건, 사회도덕적 사건의 영역(도덕 위반, 관습 위반)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사회도덕적 판단(Sociomoral judgment)

사회도덕적 판단은 사회도덕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특정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다(Turiel, 2006).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위반 행동의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 권위·규칙독립성, 정당화 측면에서의 유아의 판단을 사회도덕적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각 요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박영신, 2006; Yau & Smetana, 2003).

허용 여부는 주어진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위반의 심각성은 주어진 위반이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권위·규칙독립성은 주어진 행동에 관한 권위자의 감독이나 사회적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용 불가능한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의미한다. 이때 권위자의 감독이란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당 행동을 주시하고 있거나 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규칙이란 어린이집에서 정한 규칙을 의미한다. 정당화는 주어진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했을 때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의미한다.

2) 사회도덕적 사건(Sociomoral event)

사회도덕적 사건이란 사회도덕적 규범이 위반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도덕적 사건은 규범 위반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두 속성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사회도덕적 사건은 위반 사건에서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으로 구분된다.

단순 규범 위반은,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규범 외에 다른 영역의 규범이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사건이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의 위반이다.

2) 사회도덕적 사건의 영역(Domain)

사회도덕적 사건의 영역은 주어진 사건에서 주인공이 위반하는 규범의 영역을 의미한다.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에서 제시하는 규범의 영역은 두 가지로, 도덕적 영역과 관습적 영역이다(Turiel, 198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도덕적 사건은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단, 단순 규범 위반에서 관습적 규범이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지는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문제이다. 따라서 단순 규범 위반에서만 사건의 영역이 도덕 위반, 대인관습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도덕 위반(moral transgression; Smetana, 1985)이란 개인의 안녕, 정의, 권리, 인간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관련된 도덕적 규범이 위반되는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을 도덕 위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관습 위반(conventional transgression; Smetana, 1985)이란 집단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나 권위가 위반되는 사건이다. 이 중 대인관습 위반은 대인적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관습이 위반되는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호칭, 인사와 관련된 관습이 위반되는 사건을 대인관습 위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비대인관습 위반은 대인적 의무와 무관한 사회적 관습이 위반되는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인적 의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된 관습이 위반되는 사건을 비대인관습 위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은 위반된 규범의 영역에 따라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으로 나뉜다.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이란 관습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일어나는 도덕 위반이다. 이 연구에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은 권위에 복종하거나 일반적인 사회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이란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일어나는 관습 위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대인관습이나 비대인관습을 위반하는 사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과 절차를 서술한다. 모든 연구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No. 1810/003-003).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그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소재하는 유아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 총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연령별 연구참여자는 각 48명으로, 모든 실험조건과 연령별 연구대상에서 남녀 성비를 같게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과제는 2.5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된 것으로, 지문을 통해 언어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연령보다 언어 지능이 뒤떨어질 경우 유아가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유아지능검사 4판(K-WPPSI-Ⅳ)의 언어이해지표 검사를 수행하고, 언어이해지능을 나타내는 두 하위지표(3세의 경우 수용어휘, 상식; 4, 5세의 경우 상식, 공통성) 중 하나라도 언어 연령이 생활 연령과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거나, 종합적인 언어이해지능이 K-WPPSI-Ⅳ 표준점수 기준 하위 8.9% 미만에 있는 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연령에 비해 언어이해가 지연된 유아(표준점수 기준 하위 2.2%)뿐 아니라 경계선(표준점수 기준 하위 8.9%)에 있는 유아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유아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회도덕적 판단 측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169명의 유아 중 25명의 유아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44명의 유아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과 성별의 구성은 <표 4-1>과 같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연구 참여 유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76세였으며(*SD* = 3.27),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8.95세였다(*SD* = 3.78). 유아의 보육 기관 재원 기간은 평균 29.81개월(*SD* = 13.10)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0-599만원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어머니의 44.4%, 아버지의 51.4%).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무직(29.2%)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41.7%)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술직(13.9%)과 고위관리직/전문직/공무원(13.9%)이었다.

연령별 유아의 평균 월령은 3세 유아가 3.39세(*SD* = 0.29), 4세 유아가 4.40세(*SD* = 0.27), 5세 유아가 5.44세(*SD* = 0.27)였다. 성차 분석 결과 사회도덕적 판단의 지표 대부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1]. 또한, 연령을 통제했을 때 보육 기관 경험 기간(개월)은 사회도덕적 판단의 각 지표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2], 이후 분석에서는 보육 기관 경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표 4-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구성

구분		성별		계
		남아	여아	
연령	3세	24	24	48
	4세	24	24	48
	5세	24	24	48
계		72	72	144

1) 모든 사회도덕적 사건의 양적 지표(허용 비율, 위반의 심각성)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음. 권위, 규칙독립성은 대인관습위반에서만 여아가 더 높게 응답하였음. 일부 사건에서 정당화 진술의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아의 기타 진술이 더 높았음.

2) 종속변수를 사회도덕적 판단의 각 지표로 하고 독립변수로 보육 기관 경험 기간(개월)과 연령(개월)을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에서 보육 기관 경험 기간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별로 보육 기관 경험 기간(개월)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도덕적 판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에서 보육 기관 경험 기간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M*	*SD*
연령(모)		36.76	3.27
연령(부)		38.95	3.78
유아의 기관 재원 기간 (개월)		29.81	13.10
특성		*n*	퍼센트 (%)
월평균 가구소득	200 ~ 399 만원	23	16.0
	400 ~ 599 만원	48	33.3
	600 ~ 799 만원	24	16.6
	800만원 이상	37	25.7
	무응답	12	8.3
학력(모)	고졸 이하	8	5.6
	2~3년제 대졸	41	28.5
	4년제 대졸	34	44.4
	대학원 졸 이상	19	13.2
	무응답	12	8.3
학력(부)	고졸 이하	11	7.6
	2~3년제 대졸	23	16.0
	4년제 대졸	74	51.4
	대학원 졸 이상	24	16.7
	무응답	12	8.3
직업(모)	판매직	3	2.1
	기술직	2	1.4
	사무직	42	29.2
	서비스직	16	11.1
	고위관리직/전문직/공무원	11	7.6
	전업주부	45	31.3
	휴직	2	1.4
	자영업/기타	11	7.6
	무응답	12	8.3
직업(부)	판매직	7	4.9
	기술직	20	13.9
	사무직	60	41.7
	서비스직	12	8.3
	고위관리직/전문직/공무원	20	13.9
	농업, 임업, 어업숙련직	1	0.7
	자영업/기타	12	8.3
	무응답	12	8.3

2. 연구 도구

1)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은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에서는 유아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주인공이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위반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들려준 뒤,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수집한다.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에서 사용되는 연구 도구는 Jambon과 Smetana (2018)와 Ball 등(2017)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그림카드는 과도한 시각적 자극을 피하고 유아가 사건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흑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시행할 때에는 검사자의 특성이 유아의 응답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연구자 1인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의 개요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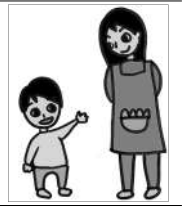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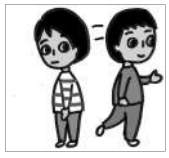
사회도덕적 사건		개수	면접 질문	코드화
단순 규범 위반	도덕 위반	2	허용 여부	0, 1
	관습 위반 대인관습 위반	2	위반의 심각성	1, 2, 3
			권위·규칙독립성(허용 여부)	0, 1
	관습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	2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	1, 2, 3
			정당화	개방형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도덕 준수 관습 위반	2	허용 여부	0, 1
			위반의 심각성	1, 2, 3
	관습 준수 도덕 위반	2	정당화	개방형

Note. 이 연구에서 권위·규칙독립성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준거로서 탐색되는 규범의 특성이다. 두 영역이 모두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범 갈등 상황에서는 권위·규칙독립성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

단순 규범 위반 에피소드는 <표 4-4>와 같다. 단순 규범 위반은 도덕 위반, 대인관습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도덕 위반 사건은 밀기(a)와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b)로 구성하였다. 대인관습 위반 사건은 선생님께 반말하기(c)와 친구 인사 무시하기(d)로 구성하였다. 비대인관습 위반 사건은 실내에서 신발 신기(e)와 손으로 식사하기(f)로 구성하였다. 이 중 도덕 위반의 a, b 사건과 관습 위반의 c, f 사건은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한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박영신, 2001; Ball et al., 2017; Jambon & Smetana, 2018; Killen & Smetana, 1999; Smetana et al., 2012; Weston & Turiel, 1980; Yau & Smetana, 2003) 이론적, 경험적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새롭게 구성한 사건은 d, e 사건이다. 이는 유아가 대인적 의무 여부에 따라 관습 위반을 구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된 대인관습 위반은 어머니 또는 교사의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등(e. g. 박영신, 2001; Yau & Smetana, 2003) 권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유아가 접하는 대인관습은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지켜야 할 다양한 관습적 규범을 접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기부터 접하게 되는 관습인, '친구가 인사할 때 응하여 인사하기'를 반영하여 대인관습 위반을 추가 구성함으로써 연구 도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비대인관습 위반은 연구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올라가기'(박영신, 2001), '낮잠 시간에 떠들기'(Smetana, 1985), '수업시간/간식 시간에 (허락 없이) 일어나기/돌아다니기'(박영신, 2001; Jambon & Smetana, 201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비대인 관습위반사건 대신 '실내에서 신발 신기'(e) 사건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비대인 관습위반사건은 반복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연구자가 일회성으로 구성, 활용한 사건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이들 사건을 연

<표 4-4> 단순 규범 위반 에피소드

사건	스크립트	'위반' 카드 (남아용)
도덕 위반		
a. 밀기	놀이 시간이에요. 별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동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욕구). 별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동동이를 밀쳤어요(위반).	
b.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	간식 시간이에요. 통통이는 바나나를 다 먹었어요. 통통이는 바나나가 또 먹고 싶었어요(욕구). 그래서 통통이는 달달이의 바나나를 몰래 가져왔어요(위반).	
대인관습 위반		
c. 선생님께 반말하기	동글이가 보라 선생님을 만났어요. 동글이는 오늘 보라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욕구). 그래서 동글이는 선생님께 '보라야, 안녕!'하고 인사했어요(위반).	
d. 친구 인사 무시하기	둥둥이가 봄봄이를 만났어요. 둥둥이는 봄이에게 '봄이야 안녕!'하고 인사했어요. 봄봄이는 오늘 둥둥이에게 인사하기가 싫었어요(욕구). 그래서 봄봄이는 둥둥이에게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위반).	
비대인관습 위반		
e. 실내에서 신발 신기	바깥 놀이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퐁퐁이는 오늘 좋아하는 신발을 신어서, 신발을 벗고 싶지 않았어요(욕구). 그래서 퐁퐁이는 신발을 벗지 않고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위반).	
f. 손으로 식사하기	밥 먹는 시간이에요. 총총이는 오늘 밥을 손으로 먹고 싶었어요(욕구). 그래서 총총이는 손으로 밥을 퍼서 먹었어요(위반).	

구도구로 채택할 근거가 희박하였다. 또한, '책상 위에 올라가기'는 관습적이지 않은 행위라는 점에 더하여 책상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행위자의 물리적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편향이 우려되었다. 한편, 수업시간, 간식시간에 허락 없이 움직이는 행동은 기존 연구에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관습 위반은 비관습적인 행동인 동시에 권위자에게 대항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대인적 의무 여부에 따라 관습을 구분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비대인관습 위반에는 특정인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비대인관습인 '실내에서 신발 벗기'를 반영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이 없으면서도 대인적 의무의 요소가 없는 비대인관습 위반을 구성하였다.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을 구분할 때에는 관습적 규범의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반 사건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사회적 맥락 외에는 여타의 사회적 맥락을 혼입하지 않았으며, 그림카드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암시할 수 있는 자극은 넣지 않았다. 단순 규범 위반의 이야기 자극은 행위자의 욕구 - 위반 순으로 그림카드[3]와 함께 제시하였다(Ball et al., 2017). 이때 '욕구'에서는 주인공의 개인적인 욕구가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을, '위반'에서는 주인공이 규범을 위반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Ball 등(2017)의 연구에서 단순 규범 위반은 목표 - 위반 - 결과의 세 가지 단계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과' 단계에는 주로 주인공의 정서 상태(예: '기분이 좋았다')가 제시되기 때문에 위반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지 판단을 방해하는 정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유아가 위반 행동에 집중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 카드는 제시하지 않고 '위반'까지만 제시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에피소드는 아래 <표 4-5>와 같다. 모든 에피소드는 연구의 목적과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이론적 정의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은 관습 준수

3) 그림카드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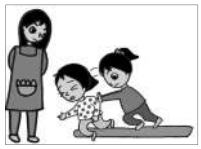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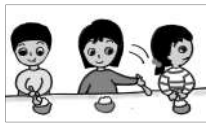
도덕 위반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으로 나뉜다. 위반 행동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규범 갈등 여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규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반 행동은 단순 규범 위반에서 나타난 위반 행동과 같게 구성하였다.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은 단순 규범 위반의 밀기(a)와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b)에 대응하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친구를 미는 사건(A)과 식사 시간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위해 친구의 숟가락을 가져오는 사건(B)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사건은 권위에 복종하거나 일반적 사회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조작적 정의와 일치한다.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단순 규범 위반 중 친구 인사 무시하기(d)와 실내에서 신발 신기(e)에 대응하여, 다친 친구를 치료해 주기 위해 다른 친구의 인사를 무시하는 사건(D)과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빨리 도와주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건(E)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사건은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대인, 비대인관습을 위반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의 조작적 정의와 일치한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은 행위의 맥락 - 위반 순으로 그림 카드와 함께 제시하였다. '맥락'에서는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이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을, '위반'에서는 이 규범을 지키기 위해 다른 영역의 규범을 위반한 사건을 제시하였다.

<표 4-5>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에피소드

사건	스크립트	'위반' 카드 (여아용)
관습 준수 도덕 위반		
A. 관습 준수 - 밀기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글이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맥락). 송송이는 동글이한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동글이를 밀쳤어요(위반).	
B. 관습 준수 -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	달달이가 교실에 있었어요. 달달이는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해요(맥락). 달달이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솜솜이의 숟가락을 몰래 가져왔어요(위반).	
도덕 준수 관습 위반		
D. 도덕 준수- 친구 인사 무시하기	몽이가 땡땡이에게 '땡땡아,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땡땡이는 친구가 다쳐서 약을 발라 주고 있어요(맥락). 땡땡이는 친구에게 약을 발라 주느라고, 몽이에게 인사하지 못했어요(위반).	
E. 도덕 준수 - 실내에서 신발 신기	동동이가 바깥 놀이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줄줄이가 교실 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맥락). 그래서 동동이는 줄줄이를 빨리 도와주려고 신발을 신은 채로 교실에 들어갔어요(위반).	

<표 4-6>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질문

요인	스크립트
위반 허용 여부	○○(행위자 이름)가 이렇게 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위반의 심각성	○○가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아주 많이 안 좋아? 이 셋 중에서 골라보자.
정당화	(단순 규범 위반) 왜? 왜 ○○가 한 게 그만큼 안 좋아?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 1차: 왜? 왜 ○○가 한 게 그만큼 안 좋아? 2차: 그렇지만 ~ 했는걸? 그래도 ○○(행위자 이름)가 이렇게 하는 게 될까/안 될까?
권위·규칙 독립성	<권위독립성>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해도 친구들을 혼내지 않는대. 이 선생님은 친구들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대. 그럼 이 선생님이었다면 / ○○가 아까 이렇게 한 것이 /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허용 여부) / 조금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아주 많이 안 좋아? 이 셋 중에서 골라보자. (위반의 심각성) <규칙독립성>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친구들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대. 그럼 이 어린이집이었으면 / ○○가 아까 이렇게 한 것이 /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허용 여부) / 조금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아주 많이 안 좋아? 이 셋 중에서 골라보자. (위반의 심각성)

Note. 권위·규칙독립성에서 '/'로 구분되는 부분은, 그림카드를 넘기는 지점임;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에 관한 2차 정당화 진술에서 '~'로 제시된 부분은, 1차 진술에서 유아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사건 정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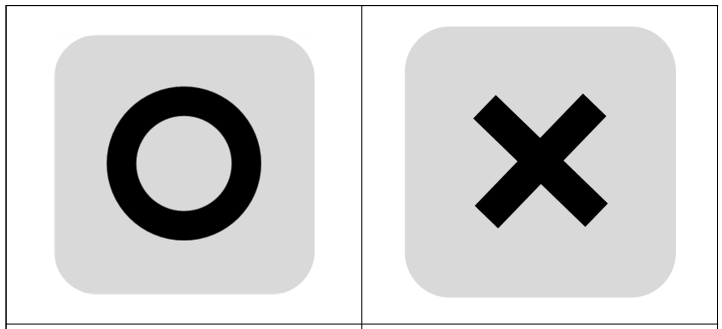
이야기 자극을 제시한 후에 유아에게 제시한 면접 질문은 위의 <표 4-6>과 같다. 면접 질문은 Jambon과 Smetana (2017)가 기존 연구들(Smetana, Jambon, & Ball, 2014)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의 대본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번안 과정에서는 박영신(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할 때에는 그림카드를 활용하였다. 위반 허용 여부는 <그림 4-1>을 제시하고, '된다.' 또는 '안 된다.'로 응답을 수집하였다(Jambon & Smetana, 2018). 위반의 심각성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 척도(그림 4-2; Ball, et al., 2017)를 제시하고, '조금 안 좋음', '많이 안 좋음', '아주 많이 안 좋음'의 3점 척도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주어진 사건을 심각한 위반 행동이라고 판단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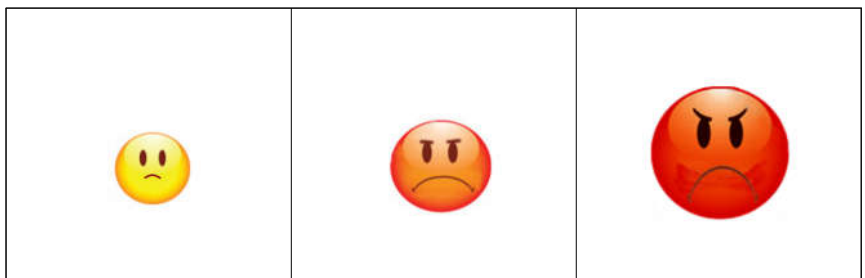
정당화는 제시된 위반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아동의 응답이다. 모든 정당화 진술은 개방형으로 기록한 뒤 선행 연구의 분류틀을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때 Yau와 Smetana (2003)의 분류틀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소분류로 분류하고, 추가로 이를 영역을 기준으로 대분류로 분류하였다. 이때 대분류는 소분류에서 도출된 개별 항목을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적, 관습적 영역의 정의에 따라 재분류한 것이다. 정당화 진술의 분류 범주와 범주별 응답 예시를 나타낸 것은 <표 4-7>과 같다.

도덕적 영역은 타인에 대한 처우와 공정성에 관한 영역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내재적 특성'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때 피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심리적 위해와 소유권 등 권리의 침해가 포함된다(Smetana, 2006). 관습적 영역은 권위, 관습, 사회질서에 관한 영역이므로(Smetana, 2006) 권위와 관련된 '처벌 회피, 권위자의 금지' 항목과 관행을 나타내는 '관습적 행동'을 포함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용적 이유' 또한 관습적 진술로 포함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유아가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실용적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관습적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관습이 정당화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유아는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관습적 규범은 실제로 실용적인 근거가 있으며, 유아는 이를 바탕으



된다(0)	안 된다(1)

<그림 4-1> 허용 여부 척도



조금 안 좋음(1)	많이 안 좋음(2)	아주 많이 안 좋음(3)

<그림 4-2> 위반의 심각성 척도

로 관습적 규범을 학습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실용적 이유를 들어 특정 행동을 불허하는 경우 이는 관습적 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존재 이유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습적 영역에 포함하였다. 한편, 판단의 근거를 도덕적, 관습적 규범과 관련짓지 않고 개인적 자유와 선호를 언급하는 응답이나 침묵, 기타 범주화할 수 없는 반응 등은 기타 범주에 포함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모두 언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양적 내용분석 연구에서는 이처럼 여러 범주에 동시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으면 복수의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한다(Tesch, 1990).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동시

<표 4-7> 정당화 응답의 범주화 기준과 분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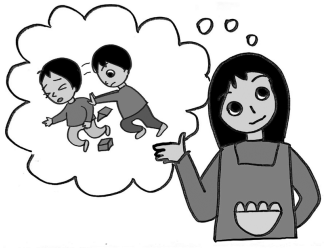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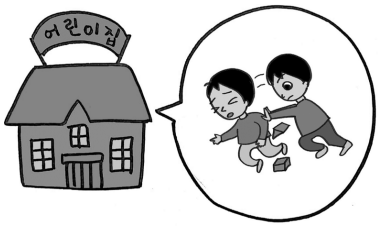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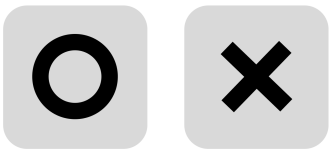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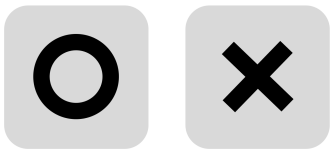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설명	예시
도덕적 진술	내재적 특성	제시된 위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	“왜냐면 친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먼지를 마셔서 아플 수도 있어요.”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요.”
관습적 진술	처벌 회피, 권위자의 금지	그렇게 하면 벌을 받거나 권위자가 금지했기 때문	“선생님이 안 혼내서.”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요.” “손으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관습적 행동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등 기존의 사회적 규칙을 언급	“친구 만나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원래 선생님한테 반말 쓰는게 아니니까.”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친구들처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실용적 이유	다칠 수 있다고 하는 등 해당 위반이 수반하는 실리적인 불이익을 언급	“손이 지저분해지니까.” “세균들이 뱃속에 들어가 배 아파.” “신발 신고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혼합 진술	혼합 진술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모두 언급하며 판단을 정당화하는 경우	“친구가 다치면 먼저 치료해 주고 인사해도 되니까.” “친구가 다쳤으면 먼저 도와주는 거지 인사 먼저 하면 속상할 수도 있죠.” “교실에 친구 도와주러 가면 신발을 얼른 벗고 도와줘야 돼.”
기타 진술	개인적 선호	개인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가 좋지요.” “친구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미분화된 반응	침묵 등 제시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반응	“그냥.” “그거는 장난친 거니까요.” “몰라요.”

Note. 단, 유아가 언급한 실용적 이유가 타인의 위험이나 불편감이면 관습적 진술이 아닌 도덕적 진술로 분류함.

에 언급한 유아의 진술은 유아가 규범 갈등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 둘 중 하나만 언급한 진술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없던 '혼합 진술' 범주를 추가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도덕적 판단에서는 유아가 정당화 과정에서 혼합 진술을 하지 않으면 2차 질문을 하였다. 도덕적, 관습적 고려사항을 모두 진술한 유아는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규범 갈등을 인지했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아는 둘 중 한 규범만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판단이 단순히 유아에게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는 영역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두 영역을 유아가 모두 인지적으로 처리한 후에 우위에 두는 영역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가 도덕적 또는 관습적 영역만을 정당화 진술로 언급할 경우, 언급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사건 정보를 다시 제시하고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재수집하였다. 유아의 재인 기억과 단기 기억은 재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면 향상되기 때문이다(Fagan, 1987; Hagen & Kail, 1973). 만약 유아가 미분화된 기타 진술을 한 경우, 1차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정보를 선택하여 2차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1차 판단에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을 허용하지 않은 유아가 미분화된 정당화 진술을 할 경우, 2차 질문에서는 주어진 사건에서 준수된 관습적 규범을 상기시켰다. 반대로 1차 판단에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을 허용한 유아가 미분화된 정당화 진술을 할 경우, 2차 질문에서는 위반된 도덕적 규범을 상기시켰다.

만약 유아의 1차 판단과 2차 판단이 다르지 않다면, 유아의 1차 판단이 규범 갈등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과 같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1차 판단이 유아의 규범 우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판단이 규범 갈등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규범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실시하고자 하였다.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
1. 맥락 제시		
2. 위반 행동 재인		
3. 허용 여부 질문		
4. 위반의 심각성 질문		

<그림4-3> 권위·규칙독립성 면접 그림카드 예시

마지막 질문은 권위·규칙독립성으로,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권위나 규칙이 변화된 상황을 그림카드를 통해 제시하고, 위반 행동의 카드를 다시 보여주며 주인공의 행동을 재인한 뒤, 이 행동의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을 다시 물어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위의 <그림 4-3>과 같다. 이때 규범 위반을 불허하고 위반의 심각성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해당 규범이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판단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유아에게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 둘 중 하나만 질문하고, 둘을 권위·규칙독립성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첫째, 권위와 규칙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둘 다 어떤 규범이 사회 관습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둘째, 단순 규범 위반의 사건 6개에 대해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을 둘 다 질문할 경우 면접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에 유아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Jambon & Smetana, 2018)와 동일하게, 영역 내에서는 한 사건 당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 중 하나만 면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도덕 위반의 두 사건 중 하나는 권위독립성 질문을, 다른 하나는 규칙독립성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에 대한 응답이 둘 다 수집되기 때문에 영역 간 비교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실험 설계를 통해 영역 내 개별 사건과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 간 조합을 균형 있게 하였다. 즉 모든 6개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해 권위규칙성, 규칙독립성 응답 사례 수가 같아지는 동시에, 3개 영역에서 권위규칙성과 규칙독립성 응답이 모두 수집될 수 있게 하는 6개의 면접조건을 도출하였다.[4)]

2) 자료의 처리

위와 같은 면접을 통해 수집된 응답은 분석을 위해 점수화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허용 여부는 허용하면 0, 허용하지 않으면 1로 코딩하였다. 위반의 심각성은 0-3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반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때 0점은 앞선 허용 여부에서 위반이 허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권위, 규칙독립성은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나 권위가 없을 때 위반 행동의 허용 여부(0, 1)와 위반의 심각성(0-3)으로 코딩하였다. 정당화 응답은 분류틀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

4) 자세한 내용은 p. 51. (1) 실험 설계를 참조할 것.

<표 4-8> 자료의 전처리

<table>
<tr><td rowspan="3">유형</td><td colspan="6">단순 규범 위반</td><td colspan="4">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td></tr>
<tr><td colspan="2">도덕 위반</td><td colspan="2">대인
관습 위반</td><td colspan="2">비대인
관습 위반</td><td colspan="2">관습 준수
도덕 위반</td><td colspan="2">도덕 준수
관습 위반</td></tr>
<tr><td>과제</td><td>a</td><td>b</td><td>c</td><td>d</td><td>e</td><td>f</td><td>A</td><td>B</td><td>D</td><td>E</td></tr>
<tr><td>허용 여부</td><td colspan="10">영역 내 평균 허용 비율 (0-1)
속성 내 평균 허용 비율 (0-1)</td></tr>
<tr><td>위반의
심각성</td><td colspan="10">영역 내 평균 위반의 심각성 (0-3)
속성 내 평균 위반의 심각성 (0-3)</td></tr>
<tr><td>정당화</td><td colspan="10">범주별 빈도의 영역 내 합계 (n)
범주별 빈도의 속성 내 합계 (n)</td></tr>
<tr><td>권위·규칙
독립성</td><td colspan="6">영역 내 평균 허용 비율 (0-1)
영역 내 평균 위반의 심각성 (0-3)</td><td colspan="4">-</td></tr>
<tr><td>판단의
변화</td><td colspan="6">-</td><td colspan="4">변화 여부 빈도의
영역 내 합계(n)</td></tr>
</table>

서 추가적인 사건 정보를 제시하고 유아의 허용 여부를 재수집하였을 때 유아의 응답은 '변화하지 않음(0)'과 '변화함(1)'으로 코딩하였다.

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요약한 것은 위의 <표 4-8>과 같다. 연구문제에 따라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과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 영역 내 평균 또는 속성 내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허용 비율은 영역 내에서 위반을 허용한 사건의 수를 전체 사건 수로 나누어, 전체 사건 중 유아가 위반을 허용하는 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산출하였다. 정당화 진술은 범주별 빈도를 영역에 따라 산출하였다. 단순 규범 위반의 경우 권위·규칙독립성 응답을 수집하였는데, 이 역시 허용 비율과 위반의 심각성에 대하여 영역 내 평균 또는 속성 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판단은 2차 판단에서 판단 변화 여부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변화 여부에 따른 빈도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실험절차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13명(3세아 4명, 4세아 5명, 5세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위해 초기에 계획된 실험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기존에 비대인관습 위반으로 설정했던 '물 잠그지 않기' 사건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 잠그기'는 어린이집에서 자주 교육하는 규칙 중 하나로, 유아의 응답에 최근 교육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근에 '손을 씻은 후에는 꼭 물을 잠가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해당 위반을 더 엄격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위반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응답을 수집한 결과, 많은 유아가 '물고기가 죽기 때문', '북극곰의 집이 없어지기 때문' 등 다른 생물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유아의 정당화 진술을 보았을 때, '물 잠그지 않기'에는 도덕적 고려사항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전형적인 관습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신발 신기'로 이 사건을 수정하였다.

또한, 같은 위반 사건(예: 단순 규범 위반 a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A)에 대한 면접이 같은 날 이루어질 경우, 먼저 본 사건에 대한 응답이 뒤에 본 사건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단순 규범 위반 a에서 제시된 규칙독립성 조건을 기억하고,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A에 대한 허용 여부와 이유를 물었을 때 '이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위반 사건을 서로 다른 날에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본조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에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참여자 설명문과 동의서, 사회인구학적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확보된 뒤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진행하였다.

(1) 실험 설계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건은 단순 규범 위반 6개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4개, 총 10개로 유아의 피로도를 우려하여 2회에 나누어 면접하였다. 1회 면접 시 단순 규범 위반 3개,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2개를 면접하도록 면접 순서를 설계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속성이 다른 동일한 위반은 서로 다른 날에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 규범이 위반되는 상황을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범 위반만 등장하는 단순 규범 위반을 먼저 제시하고, 준수한 규범과 위반한 규범이 둘 다 등장하는 규범 갈등 상황을 면접의 후반부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려사항 외에도, 실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영역별 사건 제시 순서와 사건별 권위독립성/규칙독립성 질문 할당이었다. 먼저 면접후반부로 갈수록 유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영역별 응답에서 피로도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은 두 영역을 각각 다른 날 면접하였다. 단순 규범 위반은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영역을 면접하게 되므로, 첫 면접에서 먼저 제시한 영역은 두 번째 면접에서는 나중에 제시하였다(예를 들어, 첫날 도덕 위반을 먼저 응답한 유아는 둘째 날 관습 위반을 먼저 응답하였다). 단, 이후 분석에서 영역 내 개별 사건의 점수는 영역 내 평균으로 활용되므로 영역내 개별 사건 간 순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만족시키는 사건 제

<표 4-9> 실험 설계 요약

		면접일 1		면접일 2	
사건 제시 순서	조건	단순 규범 위반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단순 규범 위반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1	cde	AB	fab	DE
	2	ecd	AB	abf	DE
	3	abc	DE	def	AB
	4	cab	DE	efd	AB

	조건	a	b	c	d	e	f
권위, 규칙 독립성 할당 조건	가	권위	규칙	권위	규칙	권위	규칙
	나	권위	규칙	권위	규칙	규칙	권위
	다	권위	규칙	규칙	권위	권위	규칙
	라	규칙	권위	권위	규칙	규칙	권위
	마	규칙	권위	규칙	권위	권위	규칙
	바	규칙	권위	규칙	권위	규칙	권위

4(사건 제시 순서) × 6(권위, 규칙독립성 할당 조건)× 2(성별) × 3(연령)
= 144(총 연구참여자)

시 순서는 4개로 <표 4-9>와 같다. 한편 사건별 권위, 규칙독립성 질문 할당은 (1) 한 유아가 동일 영역 내에서 권위, 규칙독립성을 모두 응답하면서 (2) 사건별 권위, 규칙독립성 응답이 동수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만족시키는 사건별 권위, 규칙독립성 조건은 6개로 <표 4-9>와 같다.

결과적으로 면접조건(4) × 규칙, 권위독립성 질문 할당 조건(6)의 연산으로 24개의 실험조건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연령별, 성별로 할당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낸 것은 <표 4-9>와 같다.

(2) 실험절차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2회에 걸쳐 실시하므로, 한 유아를 각기 다른 날 총 두 번 면접하였다.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은 연구자와 피험자가 1:1로 진행하였으며, 1회 면접 시 약 1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면접은 2일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다. 첫째 날 면접에 앞서, 피험자에게 한국형

유아지능검사(K-WPPSI-Ⅳ)의 언어이해지표 검사를 시행하였다.

면접에 사용되는 그림은 태블릿 PC를 통해 제시하였다. 사회도덕적 사건을 제시하기 전에, 허용 여부의 척도 그림과 위반의 심각성 척도 그림을 제시하고 소개하였다(“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건 얼마나 안 괜찮은지를 표정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야.”). 이후 유아가 척도를 완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이 둘 중에 안 되는 게 뭘까? 한번 골라볼까?”). 유아가 척도를 이해한 것이 확인되면 면접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도 사회도덕적 사건을 제시하기 전에 유아에게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 척도 그림을 다시 제시하여 상기시켰으며, 이후 첫 면접과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은 <표 4-10>과 같다.

두 면접에서 모두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아동에게 스티커를 지급하였다. 전체 면접이 끝났을 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자료 수집 후 코딩 과정에서, 전체 사례 중 약 20%의 정당화 진술을 평정자 2인이 범주화하였다. 이때 평정자 2인의 평정자 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 .72로 선행 연구의 기준(Landis & Koch, 1977)에 따라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표 4-10> 실험 절차 요약

1일차 (21분)	언어 지능 측정 (10분)	K-WPPSI-Ⅳ의 언어이해지표 검사 실시
	연습 시행 (1분)	허용 여부의 척도 그림과 위반의 심각성 척도 그림을 제시하고 소개, 유아가 손가락으로 적절한 그림을 고르는 것을 연습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10분)	단순 규범 위반 3개,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 2개에 대하여 면접 시행
2일차 (11분)	연습 시행 (1분)	허용 여부의 척도 그림과 위반의 심각성 척도 그림을 다시 소개하고 연습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 (10분)	단순 규범 위반 3개,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 2개에 대하여 면접 시행

Note. 괄호 안은 대략적인 소요시간임.

4.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에서,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규범의 영역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허용 비율, 위반의 심각성, 권위·규칙독립성에 대하여 영역을 개체 내 요인으로, 연령을 개체 간 요인으로 하는 3(영역)×3(연령) 혼합모형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개체-내 범주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료의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정통계량의 분산비가 정확히 F 분포를 따르지 않아(박용규, 송혜향, 1991) 영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제1종 오류가 쉽게 일어난다(Sheskin, 2003). 따라서 선행 연구의 제언에 따라(남덕현, 김차용, 1993; Abdi, 2010) Greenhouse-Geisser의 방법으로 자유도를 보정하였다. 이 방법은 F값 산출 과정에서 자유도를 보정하여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에서 F값의 임계치가 너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Sheskin, 2003). 이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대응별 비교를 시행하였으며, 영역에 따른 차이와 영역, 연령 상호작용은 개체-내 대비 검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영역에 따른 정당화 진술의 차이는 반복측정된 범주형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인 주변 동질성 검정(Marginal homogeneity test; Stuart, 1955; Sun & Yang, 2008)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변 동질성 검정의 영가설은 반복측정된 두 조건에서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이 모든 범주에 대하여 서로 같다는 것이다. 영가설이 기각되면 적어도 한 개 범주에 속할 확률은 두 조건 간 다름을 의미한다(Sheskin, 2003).

연구문제 2에서,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허용 비율과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 영역을 개체 내 요인으로, 연령을 개체 간 요인으로 하는 2(영역)× 3(연령) 혼합모형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대응별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당화 진술의 영역 간 차이는 주변 동질성 검정을 통해 확

인하였다. 한편 2차 판단에서 응답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항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 사건 속성에 따른 판단의 변화가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 속성과 영역을 개체 내 요인으로, 연령을 개체 간 요인으로 하는 2(속성)× 2(영역)× 3(연령) 혼합모형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속성별로 대응되는 사건인 a - A, b - B, d - D, e - E 사건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는 대응별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영역, 속성의 주효과와 요인 간 상호작용은 개체-내 대비 검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편 정당화 진술이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고, 영역과 연령에 따라 속성 간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주변 동질성 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규범 위반,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사건 속성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한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하고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이 절에서는 도덕 위반, 대인관습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영역과 연령에 따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유아가 사회도덕적 규범을 영역에 따라 구분하는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러한 양상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1) 위반 허용 여부

유아가 단순 규범 위반을 허용하는 비율을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1>과 같다. 유아가 위반을 허용하는 비율은 도덕의 경우 평균 6% (SD = 16%), 대인관습의 경우 30% (SD = 35%), 비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25% (SD = 32%)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허용 비율은 우연 수준(50%)보다 유의하게 낮아, 유아는 모든 영역의 규범 위반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도덕 위반 t = -33.82, p < .001; 대인관습 위반 t = -6.87, p < .001; 비대인관습 위반 t = -9.29, p < .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는 도덕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도덕 위반 t = -11.87, p < .001; 비대인관습 위반 t = -3.14, p < .01), 대인관습 위반은 우연 수준과 유사하게 허용하였다. 반면, 4세와 5세는 모든 영역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았다.[5)]

<표 5-1>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기술통계

	도덕		대인관습		비대인관습	
	M (*SD*)	*t*	*M* (*SD*)	*t*	*M* (*SD*)	*t*
3세	.13 (.22)	-11.87***	.48 (.36)	-0.41	.34 (.35)	-3.14**
4세	.04 (.14)	-22.34***	.33 (.35)	-3.33**	.24 (.31)	-5.83***
5세	.00 (.00)	-	.09 (.20)	-14.27***	.18 (.28)	-7.93***
연령 평균	.06 (.16)	-33.82***	.30 (.35)	-6.87***	.25 (.32)	-9.29***

Note. t값은 우연 수준(0.5)과 비교한 일표본 t검정 결과를 보고함; 5세는 모든 유아가 모든 도덕 위반 사건을 허용하지 않아 표준편차가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음.
***$p < .001$. *$p < .05$.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에 대하여 3(영역)×3(연령)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F = 18.60$, $p < .001$), 영역의 주효과($F = 41.83$, $p < .001$), 영역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 = 4.42$, $p < .01$)가 유의하였다.

대응별 비교와 개체-내 대비를 통해 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영역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보다 더 많이 허용하였다($p < .001$). 그러나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의 허용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3세보다 4세($p < .05$), 3세보다 5세(p < .001)의 위반의 허용 비율이 더 낮았으며, 4세보다 5세($p < .05$)의 허용 비율이 더 낮았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단순 규범 위반을 점점 더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영역×연령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도덕 위반보다 대인관습 위반에서 더 컸으며($F = 8.50$, $p <.001$),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대인관습 위반에서 더 컸다($F = 4.18$, $p < .05$). 그러나 도덕 위반-비대인관습 위반 간 차이는 연령과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이를 그

5) 단순 규범 위반의 평균 허용 비율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결과는 부록의 표 1에 제시하였음.

<표 5-2>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연령	1.22	2	0.61	18.60***
	오차	4.64	141	0.03	-
피험자 내	영역	4.91	1.81	2.72	41.83***
	연령× 영역	1.04	3.62	0.29	4.42**
	오차	16.55	254.89	0.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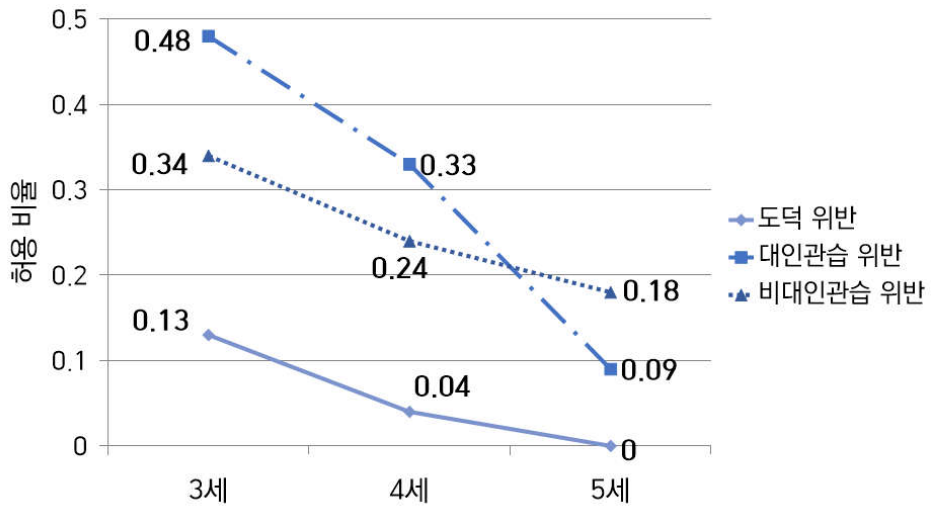
***$p < .001$. **$p < .01$.

<표 5-3>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대응별 비교 및 개체-내 대비 검정

대응별 비교		평균차
연령	3세 vs. 4세	.11*
	3세 vs. 5세	.23***
	4세 vs. 5세	.11*
개체-내 대비 검정		F
영역	도덕 위반 vs. 대인관습 위반	83.81***
	도덕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60.86***
	대인관습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2.19
연령×영역	도덕 위반 vs. 대인관습 위반	8.50***
	도덕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0.23
	대인관습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4.18*

***$p < .001$. *$p < .05$.

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5-1>과 같다. 대인관습 위반에 대한 허용 비율은 4세에서 5세 사이 급감하여, 이 시기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의 허용 비율이 교차하였다. 전반적으로 도덕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



<그림 5-1> 단순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 영역, 연령 상호작용

반의 허용 비율이 연령에 따라 유사한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대인관습 위반은 3세와 5세 사이 허용 비율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전반에 걸쳐 유아가 도덕 위반을 대인·비대인관습 위반과 구분하여 더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허용 여부 측면에서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허용 여부 측면에서 만 5세 이하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영역을 구분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선행 연구(박영신, 1999, 2001)와 대조되는 양상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는 영역 전반에 걸쳐 위반을 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대인관습 위반에서 연령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습 위반에 대한 평균 허용 비율은 3세의 경우 우연 수준이었으나, 5세에는 우연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위반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정도는 도덕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대인관습 위반에서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가 4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위반의 심각성

유아가 단순 규범 위반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은 <표 5-4>와 같다. 유아가 응답한 위반의 심각성은 도덕의 경우 평균 2.41점 (SD = 0.62), 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1.59점 (SD = 0.90), 비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1.75점 (SD = 0.94)로 나타나 도덕 위반, 비대인관습 위반, 대인관습 위반 순으로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아는 도덕 위반(M = 2.35, SD = 0.71), 비대인관습 위반(M = 1.61, SD = 1.09), 대인관습 위반(M = 1.27, SD = 0.97) 순으로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 4세아도 마찬가지로, 도덕 위반(M = 2.41, SD = 0.69), 비대인관습 위반(M = 1.79, SD = 0.90), 대인관습 위반(M = 1.57, SD = 0.95) 순으로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5세아는 도덕 위반(M = 2.46, SD = 0.42), 대인관습 위반(M = 1.94, SD = 0.90), 비대인관습 위반(M = 1.83, SD = 0.83) 순으로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6)]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영역)×3(연령)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F = 3.88, p < .05)와 영역의 주효과(F = 52.56,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영역×연령 상호작용은 근소한 차이로 기각되었다(p < .1).

각 효과를 대응별 비교와 개체-내 대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먼저 영역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유아는 연령과 상관없이 도덕 위반을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p < .001). 그러나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은 유사하게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영역과 상관없이

6) 단순 규범 위반의 평균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결과는 부록의 표 2에 제시하였음.

<표 5-4>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도덕 *M* (*SD*)	대인관습 *M* (*SD*)	비대인관습 *M* (*SD*)
3세	2.35 (0.71)	1.27 (0.93)	1.61 (1.09)
4세	2.41 (0.69)	1.57 (0.95)	1.79 (0.90)
5세	2.46 (0.42)	1.94 (0.70)	1.83 (0.83)
연령 평균	2.41 (0.62)	1.59 (0.90)	1.75 (0.94)

<표 5-5>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연령	2.616	2	1.308	3.879*
	오차	47.550	141	0.337	-
피험자 내	영역	53.699	1.903	28.211	52.558***
	연령×영역	4.405	3.807	1.157	2.156+
	오차	144.063	268.391	0.537	-

+$p < .1$. ***$p < .001$. *$p < .05$.

<표 5-6>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 대응별 비교 및 개체-내 대비 검정

개체-내 대비 검정		*F*
영역	도덕 위반 vs. 대인관습 위반	92.24***
	도덕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76.60***
	대인관습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2.76
대응별 비교		평균차
연령	3세 vs. 4세	-0.18
	3세 vs. 5세	-0.33*
	4세 vs. 5세	-0.15

3세보다 5세가 단순 규범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p < .05$). 그러나 3세와 4세, 4세와 5세 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3, 4, 5세 유아가 모두 도덕 위반이 대인·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이는 유아가 도덕 위반을 관습 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한다는 연구 결과(박영신, 1999, 2001)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유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설(김상윤, 2000; Naito, 1994), 유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관습 위반이 그렇지 않은 관습 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박영신, 2001)와는 불일치한다. 한편 유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역과 무관하게 위반 행동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본 허용 비율과 같은 양상으로, 유아가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을 구분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위반 사건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당화 진술

유아의 정당화 진술의 범주별 빈도를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고 영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7> 및 <그림 5-3>과 같다. 유아는 도덕 위반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당화 진술(69.1%)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이 기타 진술(25.3%)이었다. 유아가 언급한 도덕적 정당화 진술의 예시는 “친구를 미는 건 너무 나빠요”, “친구 다쳐.” 등으로 위반 행동의 내재적인 특성이나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진술이었다. 한편 대인관습 위반에 대해서는 기타 진술(51.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습적 정당화 진술(26.4%)이었다. 대인관습 위반에서 기타 진술 예시는 “그냥”, “친구를 인사 안하고 갔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등 도덕적 또는 관습적 정당화로 분류할 수 없는 진술이었다. 관습적 정당화 진술 예시는 “어른한테 친구처럼 얘기했으니까”, “반말이니까.” 등으로 제시된 위반 행동이 관습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었다. 비대인관습 위반에 대해서는 관습적 정당화 진술(57.6%)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이 기타 진술(35.1%)이었다. 비대인관습 위반에 대한 관습적 정당화 진술 예시는 “친구들처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몸에 세균이 들어가니까” 등으로, 관습적 행위라는 점을 언급하거나 관습의 실용적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이 많았다.

영역에 따라 정당화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아는 도덕 위반과 대인관습 위반($p < .001$), 도덕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p < .001$) 쌍에서 판단의 근거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 쌍에서는 정당화 진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는 도덕 위반에 관한 판단을 관습 위반과 다르게 정당화하였으나,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같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정당화 진술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덕 위반 $\chi^2 = 38.46$, $p < .001$; 대인관습 위반 $\chi^2 = 40.94$, $p < .001$; 비대인관습 위반 $\chi^2 = 45.06$, $p < .001$). 이를 <그림 5-3>을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화된 기타 진술이 감소하고 도덕적 또는 관습적 규범에 비추어 판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도덕 위반에 관해서는 관습적 진술은 유지되는 가운데 도덕적 진술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에 관해서는 도덕적 진술과 관습적 진술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모든 연령의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에서는 도덕적, 관습적 진술을 유사한 빈도로 하였으나, 비대인관습 위반에 대해서는 관습적 진술을 도덕적 진술보다 뚜렷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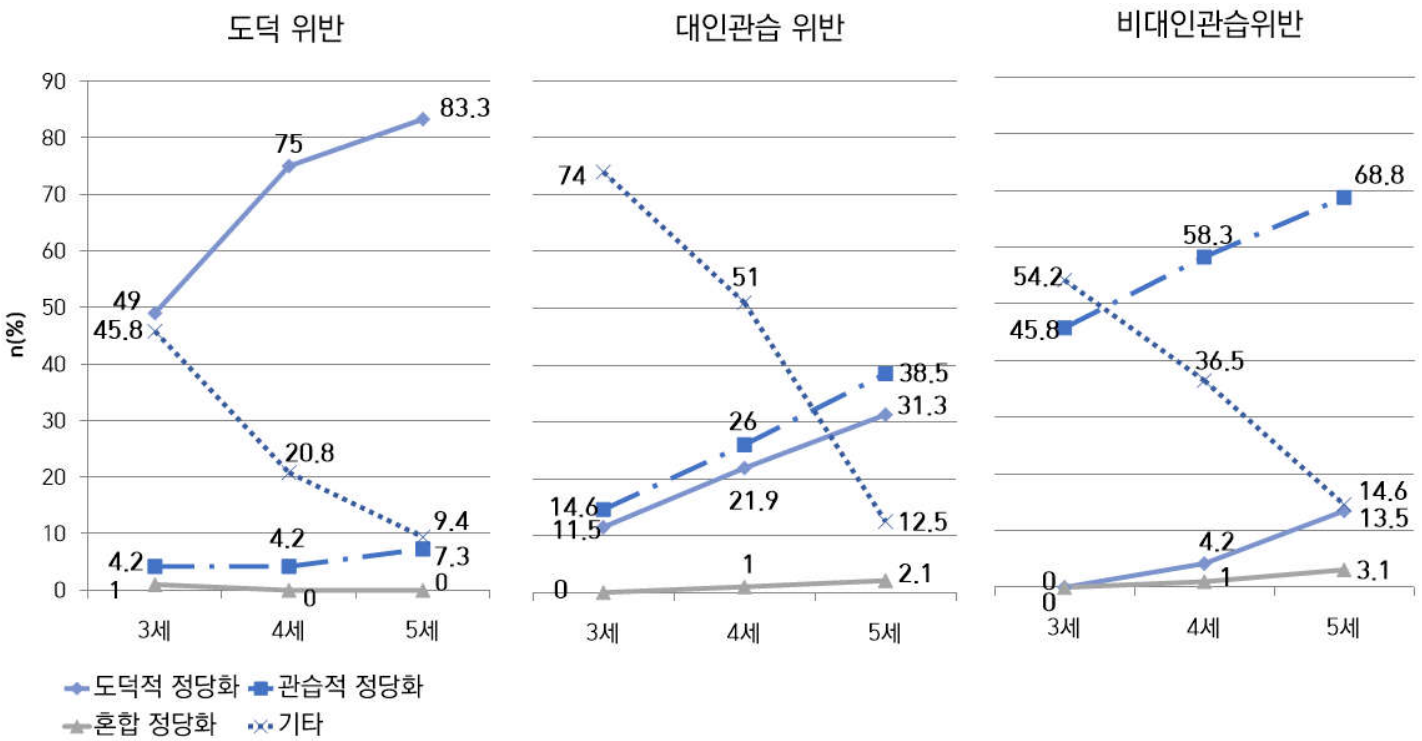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다름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의 4, 5세 유아가 도덕과 관습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함을 보여준 이전 연구 결과(박영신, 2006; Song et al.,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타 진술이 줄고 도덕적, 관습적 진술이 증가한 것은 유아기에 점차 정교해지는 사회도덕적

<표 5-7> 단순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연령	정당화 범주	도덕(A)	대인관습(B)	비대인관습(C)	주변 동질성 검정		
		n (%)	n (%)	n (%)	A, B	A, C	B, C
3세	도덕적 정당화	47 (49.0)	11 (11.5)	0 (0.0)	71.00***	142.00***	105.00
(*n*=96)	관습적 정당화	4 (4.2)	14 (14.6)	44 (45.8)			
	혼합 정당화	1 (1.0)	0 (0.0)	0 (0.0)			
	기타	44 (45.8)	71 (74.0)	52 (54.2)			
4세	도덕적 정당화	72 (75.0)	21 (21.9)	4 (4.2)	69.00***	175.00***	108.00
(*n*=96)	관습적 정당화	4 (4.2)	25 (26.0)	56 (58.3)			
	혼합 정당화	0 (0.0)	1 (1.0)	1 (1.0)			
	기타	20 (20.8)	49 (51.0)	35 (36.5)			
5세	도덕적 정당화	80 (83.3)	30 (31.3)	13 (13.5)	66.00***	167.00***	113.00
(*n*=96)	관습적 정당화	7 (7.3)	37 (38.5)	66 (68.8)			
	혼합 정당화	0 (0.0)	2 (2.1)	3 (3.1)			
	기타	9 (9.4)	27 (28.1)	14 (14.6)			
연령 합계	도덕적 정당화	199 (69.1)	62 (21.5)	17 (5.9)	206.00***	265.00***	326.00
(*N*=288)	관습적 정당화	12 (5.2)	76 (26.4)	166 (57.6)			
	혼합 정당화	1 (0.3)	3 (1.0)	4 (1.4)			
	기타	73 (25.3)	147 (51.0)	101 (35.1)			
연령차	$\chi^2(6)$	38.46***	40.94***	45.06***			

Note. 주변 동질성 검정에는 Stuart-Maxwell test에서 관측된 주변 동질성 통계량(df = 2)을 보고하였음.

***p < .001.



<그림 5-3> 영역과 연령에 따른 단순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판단 능력(Helwig & Turiel, 2011)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한편 비대인관습 위반에 비해 대인관습 위반에서 도덕적 진술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이 비대인관습 위반과 다르게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권위·규칙독립성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권위·규칙독립성 응답은 교사의 감독(권위) 및 어린이집 약속(규칙)이 없을 때 일어난 위반 행동에 관해 유아가 응답한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유아가 권위, 규칙이 없을 때 단순 규범 위반을 허용한 비율을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8>과 같다. 주어진 규범에 대한 권위자의 감독이나 어린이집 규칙이 없을 때 유아가 위반을 허용하는 비율은 도덕의 경우 평균 43% (SD = 58%), 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70% (SD = 36%), 비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64% (SD = 41%)이었다. 허용 비율을 우연 수준과 비교한 결과 도덕 위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은 우연 수준과의 차이가 유의하여, 관련도니 권위와 규칙이 없으면 위반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습 위반 t = 6.78, p < .001; 비대인관습 위반 t = 4.09, p < .001).

유아가 권위, 규칙이 없을 때 단순 규범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9>와 같다. 유아가 주어진 규범에 대한 권위자의 감독이나 어린이집 규칙이 없을 때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도덕의 경우 평균 1.45점 (SD = 1.13), 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0.69점 (SD = 0.90), 비대인관습의 경우 평균 0.81점 (SD = 1.01)인 것으로 나타나[7], 도덕, 비대인관습, 대인관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범의 권위·규칙독립성에서 영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

7)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결과는 부록의 표 3, 4에 제시하였음.

<표 5-8>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허용 비율): 기술통계

	도덕		대인관습		비대인관습	
	M (*SD*)	*t*	*M* (*SD*)	*t*	*M* (*SD*)	*t*
3세	.36 (.37)	-2.55*	.70 (.35)	3.88***	.64 (.37)	2.55*
4세	.43 (.39)	-1.31	.74 (.31)	5.37***	.67 (.40)	2.86**
5세	.50 (.58)	0.00	.67 (.40)	2.86**	.61 (.45)	1.76
연령 평균	.43 (.46)	-0.07	.70 (.36)	6.78***	.64 (.41)	4.09***

***p < .001. **p < .01. *p < .05.

<표 5-9>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도덕	대인관습	비대인관습
	M (*SD*)	*M* (*SD*)	*M* (*SD*)
3세	1.64 (1.07)	0.73 (0.93)	0.78 (0.86)
4세	1.39 (1.09)	0.57 (0.73)	0.74 (1.03)
5세	1.34 (1.23)	0.76 (1.03)	0.90 (1.13)
연령 평균	1.45 (1.13)	0.69 (0.90)	0.81 (1.01)

하기 위해 3(영역)×3(연령)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10>, <표 5-11>과 같다. 먼저 권위, 규칙이 없을 때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에서 영역의 주효과(F = 32.38,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연령의 주효과와 영역×연령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 규칙이 없을 때 위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에 대한 유아의 판단에서도 영역의 주효과(F = 48.82, p < .001)만 유의하였으며, 연령의 주효과 및 연령, 영역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체-내 대비를 통해 영역의 주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한 결과는 <표 5-12>와 같다. 유아는 관련된 권위, 규칙이 없을 때 대인, 비대인 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보다 더 허용하였고(p < .001), 대인관습 위반을 비대인 관습 위반보다 더 허용하였다(p < .05). 즉, 유아는 권위, 규칙이 없을 때 대인관습, 비대인관습, 도덕 순으로 위반 행동을 많이 허용하였다. 또한 권위, 규칙독립 조건에서 도덕 위반이 대인, 비대인관습 위

<표 5-10>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연령	0.050	2	0.03	.23
	오차	15.277	141	0.11	-
피험자 내	영역	5.792	1.83	3.17	32.38***
	연령×영역	0.486	3.65	0.13	1.36
	오차	25.222	257.412	0.10	-

***$p < .001$

<표 5-11>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연령	0.557	2	0.278	0.39
	오차	99.983	141	0.709	-
피험자 내	영역	49.170	1.842	26.639	48.82***
	연령×영역	2.316	3.684	0.629	1.15
	오차	142.014	259.734	0.547	-

***$p < .001$

<표 5-12> 단순 규범 위반의 권위·규칙독립성: 개체-내 대비 검정

지표	대응	F
허용 비율	도덕 위반 vs. 대인관습 위반	51.01***
	도덕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30.29***
	대인관습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4.55*
위반의 심각성	도덕 위반 vs. 대인관습 위반	66.13***
	도덕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63.14***
	대인관습 위반 vs. 비대인관습 위반	2.58

***$p < .001$. *$p < .05$.

반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다($p < .001$). 그러나 대인관습과 비대인관습 간 응답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아는 권위, 규칙이 없을 때 도덕 위반이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같은 조건에서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의 심각성은 서로 같다고 보았다.

권위·규칙독립성에서 나타난 영역의 주효과는 유아가 도덕적 규범이 관습적 규범보다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가 도덕과 관습을 구분하는 주요한 지표인 권위, 규칙독립성에서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박영신, 1999, 2001; 최보가, 송미화, 1998)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특히 유아는 권위,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보다 더 많이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대인관습 위반보다도 더 많이 허용하였다. 이는 관습이 대인적 의무를 규정한다고 해도 유아가 이것을 도덕적 규범과 유사하게 권위,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인 규범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의 주효과와 영역×연령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권위·규칙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유아기 연령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며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 판단하는 양상이 모든 연령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가 3세부터 이미 도덕적 위반과 관습적 위반을 권위, 규칙독립성의 측면에서 구분한다는 연구(Smetana, Schlagman, & Adams, 1993)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단순 규범 위반에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과 관련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모든 연령과 모든 판단 지표에서 유아는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였다. 유아는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이 관습적 규범보다 더 중대한 규범이며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판단의 근거로 도덕적 진술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는 모든 영역의 위반 행동을 점점 더 허용하지 않고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연령에 따른 허용 비율의 감소폭이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대인관습 위반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유아는 도덕적 규범이 대인관습, 비대인관습보다 권위,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위·규칙독립성 측면에서 대인관습과 비대인관습을 구분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비대인관습이 대인 관습보다 권위,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응답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반 사건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미분화된 기타 진술이 줄어들고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비추어 진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영역과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도덕적 진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한 점은, 유아가 점차 더 단순 규범 위반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이 절에서는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준수되거나 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일관적으로 우위에 두는 규범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발달과 영역, 연령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1) 위반 허용 여부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을 허용한 비율을 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13>과 같다. 유아는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을 평균 11% (*SD* = 24%),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을 평균 58% (*SD* = 37%) 허용하였다. 유아는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덕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은 허

<표 5-13>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허용 비율: 기술통계

	관습 준수 도덕 위반		도덕 준수 관습 위반	
	M (*SD*)	*t*	*M* (*SD*)	*t*
3세	.10 (.21)	-13.36***	.53 (.36)	0.60
4세	.15 (.29)	-8.43***	.64 (.37)	2.55*
5세	.08 (.21)	-13.45***	.57 (.39)	1.31
연령 평균	.11 (.24)	-19.46***	.58 (.37)	2.57*

***$p < .001$. *$p < .05$.

<표 5-14>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허용 비율: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연령	.15	2	.08	1.43
	오차	7.35	141	.05	-
피험자 내	영역	15.82	1	15.82	171.69***
	영역×연령	0.06	2	0.03	0.34
	오차	12.99	141	0.09	-

***$p < .001$.

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가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을 허용한 비율은 우연 수준(0.5)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t = -19.46, $p < .001$),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의 경우 이를 허용한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2.57, $p < .05$).

연령별로 살펴보면,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은 모든 연령의 유아가 허용하지 않았다(3세 t = -13.36, $p < .001$; 4세 t = -8.43, $p < .001$; 5세 t = -13.45, p <.001). 반면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의 경우, 3, 5세 유아는 허용 비율이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고, 4세 유아는 허용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아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55, $p < .05$).[8)]

8)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의 평균 허용 비율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결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을 허용하는 비율이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2(영역)×3(연령)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14>와 같다. 분석 결과 영역의 주효과(F = 171.69, p < .001)가 유의하여, 앞서 본 영역에 따른 허용 비율의 차이(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경우 11%,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의 경우 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의 주효과와 영역×연령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관습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도덕 위반보다 도덕적 가치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을 더 많이 허용하며, 이러한 양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규범 또는 관습적 규범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유아는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이 지켜지고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함을 의미한다. 모든 연령의 유아가 관습적 가치를 위한 도덕적 규범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4, 5세 유아가 성-전형적 관습에 따라 놀이상황에서 다른 성별의 친구를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응답한 것(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이 결과는 여기서 더 나아가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을 비교함으로써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일관적으로 상위 원칙으로 적용함을 보여준다.

2) 위반의 심각성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도를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15>와 같다. 유아가 응답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심각성은 평균 2.16점(SD = 0.79),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평균 0.88점(SD = 0.91)으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이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아가 응답한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심각성은

과는 부록의 표 5에 제시하였음.

<표 5-15>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심각성: 기술통계

	관습 준수 도덕 위반 M (SD)	도덕 준수 관습 위반 M (SD)
3세	2.11 (0.71)	0.98 (0.93)
4세	2.15 (0.89)	0.79 (0.93)
5세	2.23 (0.78)	0.88 (0.87)
연령 평균	2.16 (0.79)	0.88 (0.91)

<표 5-16>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심각성: 영역과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연령	0.21	2	0.11	0.24
	오차	60.66	141	0.43	-
피험자 내	영역	118.20	1	118.20	196.26***
	연령×영역	0.77	2	0.38	0.64
	오차	84.91	141	0.60	-

***$p < .001$.

M = 2.11 (SD = 0.71),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M = 0.98 (SD = 0.93)이었다. 4세아의 경우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은 M = 2.15 (SD = 0.89),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M = 0.79 (SD = 0.93)이었다. 한편 5세아의 경우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은 M = 2.23 (SD = 0.78),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은 M = 0.88 (SD = 0.87)이었다. 모든 연령에서 도덕 준수 관습 위반보다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이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9] .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2(영역)×3(연령)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16>과 같다. 분석 결과, 영역의 주효과(F = 196.26, $p < .001$)만이 유의했고, 연령의 주효과와 영역×연령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관습 위반보다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을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

9)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결과는 부록의 표 6에 제시하였음.

며, 이러한 양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같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는 3-5세 시기에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중대한 원칙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당화 진술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규범 위반에 관한 3, 4, 5세 유아의 정당화 진술이 준수·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영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17> 및 <그림 5-3>과 같다. 유아는 관습 준수 도덕 위반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진술(56.9%)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다음으로 기타 진술(25.3%)이었다. 유아가 언급한 도덕적 정당화 진술의 예시는 "친구 밀치니까 딱딱하면 무릎 다칠 수 있어서", "친구를 그냥 밀어서요. 친구가 아파요." 등이었다. 두 종류의 규범을 모두 언급한 혼합 진술은 7.3%로 나타났는데, 예시는 "친구를 밀치지 말고 말로 그래야 돼요. 너 자리로 가.", "내 자리라고 말해야 돼요. (밀치면)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날 수도 있어요", "민건 잘못했긴 했지만 얘가 자리에 앉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밀친 거는 나쁘지만." 등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혼재하는 두 가지 규범을 모두 언급하였다. 한편, 유아는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대해서도 도덕적 정당화 진술(33.7%)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이 기타 진술(31.6%)이었다. 유아가 언급한 도덕적 정당화 진술의 예시는 "친구가 힘들으면 도와주면 친구가 안 힘들으니까", "친구가 무거워서 다칠 것 같아" 등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고려한 도덕적 언급도 있었지만 "어... 신발. 그러면 친구들 발에 우리가 밟은 가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친구들 맨발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등 관습을 위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결과를 언급하는 예도 있었다. 두 종류의 규범을 모두 언급한 혼합 진술은 15.3%로 나타났는데, 예시는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땐 (신발 벗는 것과) 상관없이 해줘야

<표 5-17>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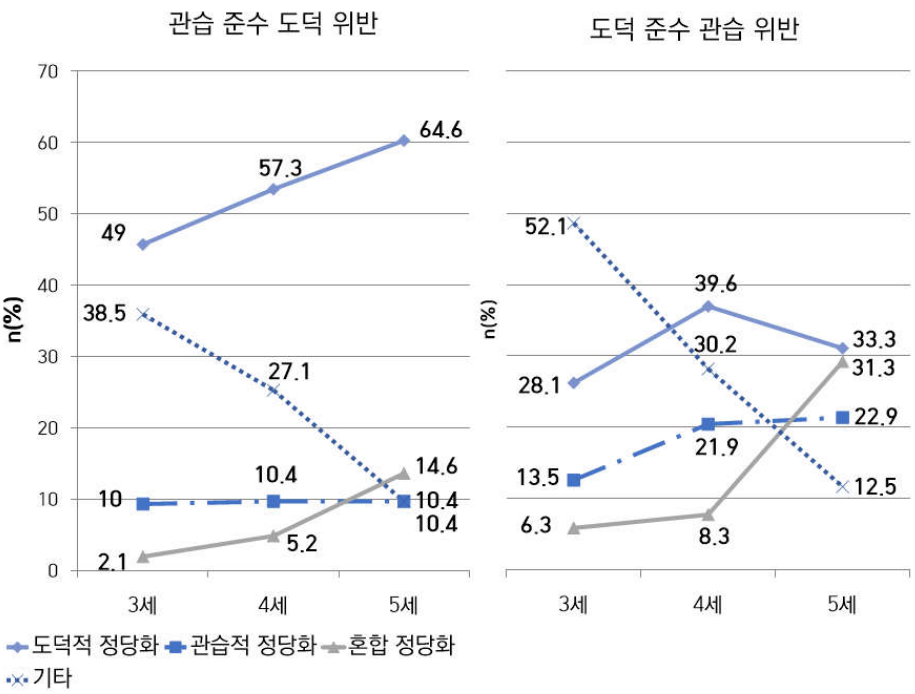
연령	정당화 범주	관습 준수 도덕 위반 n (%)	도덕 준수 관습 위반 n (%)	주변 동질성 검정
3세 (n=96)	도덕적 정당화	47 (49.0)	27 (28.1)	98.00**
	관습적 정당화	10 (10.4)	13 (13.5)	
	혼합 정당화	2 (2.1)	6 (6.3)	
	기타	37 (38.5)	50 (52.1)	
4세 (n=96)	도덕적 정당화	55 (57.3)	38 (39.6)	125.00
	관습적 정당화	10 (10.4)	21 (21.9)	
	혼합 정당화	5 (5.2)	8 (8.3)	
	기타	26 (27.1)	29 (30.2)	
5세 (n=96)	도덕적 정당화	62 (64.6)	32 (33.3)	126.00**
	관습적 정당화	10 (10.4)	22 (22.9)	
	혼합 정당화	14 (14.6)	30 (31.3)	
	기타	10 (10.4)	12 (12.5)	
연령 합계 (N=288)	도덕적 정당화	164 (56.9)	97 (33.7)	349.00***
	관습적 정당화	30 (10.4)	56 (19.4)	
	혼합 정당화	21 (7.3)	44 (15.3)	
	기타	73 (25.3)	91 (31.6)	
연령차	$\chi^2(6)$	28.36***	52.56***	

Note. 주변 동질성 검정은 Student-Maxwell test에서 관측된 주변 동질성 통계량(df = 2)을 보고하였음.

***$p < .001$.

돼요.", "친구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신고 들어간 거라서" 등 타인의 신체적 어려움과 신발을 벗지 않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이었다.

준수되거나 위반된 규범의 영역에 따라 정당화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아는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관해 판단의 근거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유아는 두 영역에서 모두 도덕적 진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지만, 도덕 준수 관습 위반보다 관습 준수 도덕 위반



<그림 5-4> 영역과 연령에 따른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 정당화 진술

에 대해 도덕적 진술을 다른 진술과 비교하여 더 뚜렷하게 많이 활용하였다. 관습 준수 도덕 위반에서는 전체 정당화 진술 중 과반이 도덕적 정당화 진술이었던 반면(56.7%),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서는 이에 비해 도덕적 진술의 비율이 다소 낮고(33.7%) 관습적 진술과 혼합 진술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 5세와 달리 4세에서는 영역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두 영역에서 모두 정당화 진술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습 준수 도덕 위반 $\chi^2 = 28.36$, $p < .001$; 도덕 준수 관습 위반 $\chi^2 = 52.56$, $p < .001$). 연령에 따른 진술의 변화를 <그림 5-4>를 통해 살펴보면, 두 영역에서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 진술이 감소하고 혼합 진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경우 관습적 정당화 진술은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도덕적 진

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도덕적 진술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관습적 진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유아는 도덕적 정당화 진술을 가장 많이 활용함을 보여준다. 다만 도덕적 진술을 관습적 진술, 기타 진술과 비교하여 얼마나 뚜렷하게 많이 사용하느냐에서 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위반되는 규범이 도덕적 규범일 때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전형적 관습을 고수하기 위해서 도덕적 규범이 어겨지는 상황에서 유아가 도덕적 진술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전 연구(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영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에서 모두 도덕적 진술이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된 것은 도덕적, 관습적 영역이 모두 등장하는 사건에서 위반되는 규범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유아의 판단 근거는 관습적 규범보다는 도덕적 규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앞선 허용 비율과 위반의 심각성에서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 근거는 점차 더 정교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3-5세 시기 규범 갈등 상황에 관한 유아의 진술에서는 미분화된 진술이 줄어들고, 사건에서 등장하는 두 영역을 모두 언급하는 혼합 진술이 증가하였다. 한편 3, 5세와 달리 4세 유아는 정당화 진술에서 도덕 준수 관습 위반과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의 정당화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다.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대해 3세 유아는 기타 진술을, 5세 유아는 혼합 진술을 많이 하여 도덕적 진술이 많이 나타난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과도기에 있는 4세 유아는 도덕 준수 관습 위반에 대하여 기타 진술은 적게 하지만, 혼합 진술은 뚜렷하게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습 준수 도덕 위반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술을 가장 많이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8> 규범 갈등 상황에서 2차 판단의 응답 변화: 빈도분석 및 영역과 연령의 효과

	관습 준수 도덕 위반			도덕 준수 관습 위반		
	변화함	변화하지 않음	변화율	변화함	변화하지 않음	변화율
3세	7	89	.07	11	85	.11
4세	4	92	.04	5	91	.05
5세	4	92	.04	11	85	.11
연령 합계	15	273	.05	27	261	.09

Note. 우연 수준(0.5)을 검정비율로 하여 변화율에 대한 이항 검정 결과 모든 셀에서 판단이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유의하였음($p < .001$).

마지막으로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위반에 관한 유아의 판단이 갈등하는 두 규범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당화 진술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가 정당화 진술 과정에서 혼합 진술을 하지 않고 둘 중 한 영역만 언급하거나 기타 진술을 하였을 경우, 유아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규범 정보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유아의 판단이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유아의 허용 여부 판단이 변화했는지를 영역과 연령에 따라 나타내고 변화율을 우연 수준과 비교한 결과는 <표 5-18>과 같다.

영역과 연령에 따라 판단의 변화율은 .04에서 .11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항 검정 결과 모든 영역과 연령에서 판단이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유의하였다($p < .001$). 이는 유아가 규범 갈등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내린 2차 판단이 처음 내린 판단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의 1차 판단의 내용을 유아의 규범 우위로 해석할 수 있다.

3.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 차이

이 절에서는 같은 위반 사건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

황에서의 위반일 때 유아의 판단을 비교함으로써,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반 행동에 관한 유아의 판단이 다른지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위반된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확인함으로써, 갈등하는 다른 규범의 유무에 따라 규범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이 바뀌는 정도가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다.

1) 위반 허용 여부

같은 위반 사건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위반일 때 허용 비율의 차이를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19>와 같다.

영역 전반에 걸쳐 위반에 대한 유아의 허용 비율은 단순 규범 위반일 때 평균 12% (SD = 19%), 규범 갈등 상황일 때 평균 35% (SD = 23%)인 것으로 나타나 규범 갈등 상황일 때 위반을 더 많이 허용하였다. 모든 영역과 연령에서 같은 양상이 나타나, 유아는 단순 규범 위반보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을 더 많이 허용하였다.

이러한 속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가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2(속성)×2(영역)×3(연령)의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20> 과 같다. 분석 결과, 속성의 주효과(F = 112.33, p < .001), 영역×속성 상호작용 효과(F = 52.98, p < .001), 연령×속성 상호작용 효과(F = 8.93,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 영역 상호작용, 속성, 영역, 연령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속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은 유아가 단순 규범 위반보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을 더 많이 허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변량의 약 13%를 설명하였다(η^2 = .13).

한편, 영역×속성 상호작용은 유아가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을 때 단순 규범 위반과 비교하여 도덕 위반보다 관습 위반을 더 큰 폭으로 허용함을 의미한다. 즉,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을 단순 규범 위반

<표 5-19> 속성, 영역, 연령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허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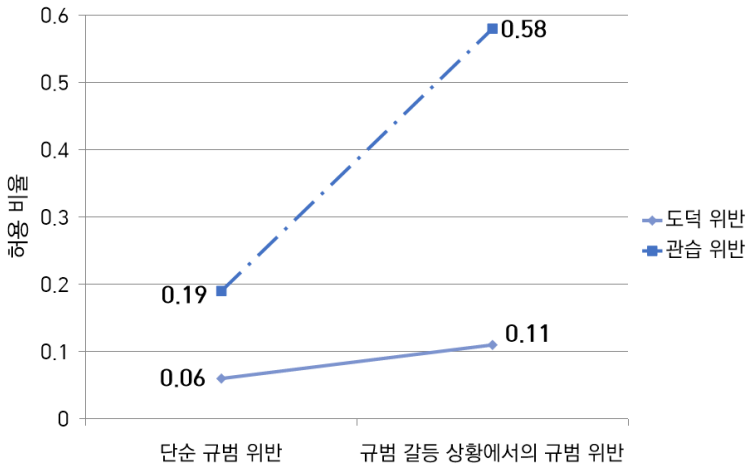
영역	속성	3세	4세	5세	연령 평균
		M (*SD*)	*M* (*SD*)	*M* (*SD*)	*M* (*SD*)
도덕 위반	단순 규범 위반	.13 (.22)	.04 (.14)	.00 (.00)	.06 (.16)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10 (.21)	.15 (.29)	.08 (.21)	.11 (.24)
관습 위반	단순 규범 위반	.31 (.37)	.20 (.30)	.05 (.15)	.19 (.31)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53 (.16)	.64 (.37)	.57 (.39)	.58 (.38)
영역 평균	단순 규범 위반	.22 (.23)	.12 (.19)	.03 (.08)	.12 (.19)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32 (.22)	.39 (.24)	.33 (.23)	.35 (.23)

<표 5-20> 사회도덕적 사건 허용 비율: 속성, 영역,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피험자 간	연령	.93	2	.467	4.51	.08
	오차	14.60	141	.104	-	-
피험자 내	영역	12.99	1	12.990	225.32***	.24
	오차	8.13	141	0.058	-	-
	속성	7.22	1	7.223	112.33***	.13
	오차	9.07	141	0.064	-	-
	연령×영역	0.07	2	0.034	0.60	.00
	영역×속성	4.08	1	4.084	52.98***	.08
	오차	10.87	141	0.077	-	-
	연령×속성	1.15	2	0.574	8.93***	.02
	속성×영역×연령	0.24	2	0.118	1.53	.00

***$p < .001$.

보다 더 많이 허용하는 정도는 도덕 위반보다 관습 위반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이러한 영역과 속성의 상호작용은 전체 변량의 약 8%를 설명하였으며(η^2 = .08),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5-5>와 같다.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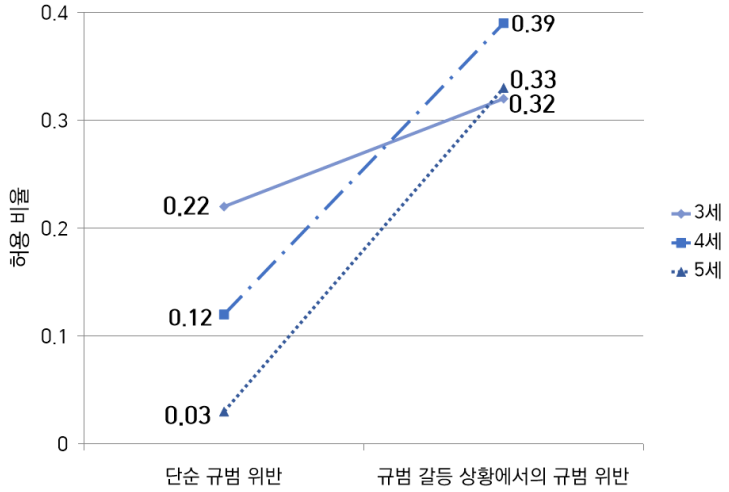
<그림 5-5> 사회도덕적 사건의 허용 비율: 속성, 영역 상호작용

역별로 속성의 주효과분석을 시행하고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10], 갈등하는 관습적 규범의 유무는 도덕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4% 설명했지만(η^2 = .04), 갈등하는 도덕적 규범의 유무는 관습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약 41% 설명하였다(η^2 = .41).

또한, 유의한 연령×속성 상호작용은 갈등하는 다른 규범 때문에 위반 사건에 대한 허용 여부 판단이 바뀌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변량의 약 2%를 설명하였다(η^2 = .02).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6>으로, 4,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갈등하는 다른 규범을 고려하여 규범 위반을 더 많이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위반 행동에 대한 3-5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규범 갈등 상황 때문에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도덕 판단을 할 때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Tisak, Tisak & Goldstein, 2006)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는 상

10) 사건별로 허용 비율에 대한 속성의 주효과분석 및 속성·영역 상호작용, 속성·연령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부록의 표 7, 표 8에 제시하였음.



<그림 5-6> 사회도덕적 사건의 허용 비율: 속성, 연령 상호작용

황적 맥락을 갈등하는 다른 규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위해 특정 영역의 규범 위반을 허용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갈등하는 다른 규범 때문에 판단이 바뀌는 정도는 영역에 따라 달랐는데, 유아는 관습 위반보다 도덕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범 갈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달라지는 정도가 더 컸다.

2) 위반의 심각성

같은 위반 사건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위반일 때 위반의 심각성의 차이를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21>과 같다. 영역 전반에 걸쳐 유아가 응답한 위반의 심각성은 단순 규범 위반일 때 M = 2.14 (SD = 0.60), 규범 갈등 상황일 때 M = 1.52 (SD = 0.65)인 것으로 나타나 규범 갈등 상황보다 일반적인 맥락일 때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영역과 연령에서 같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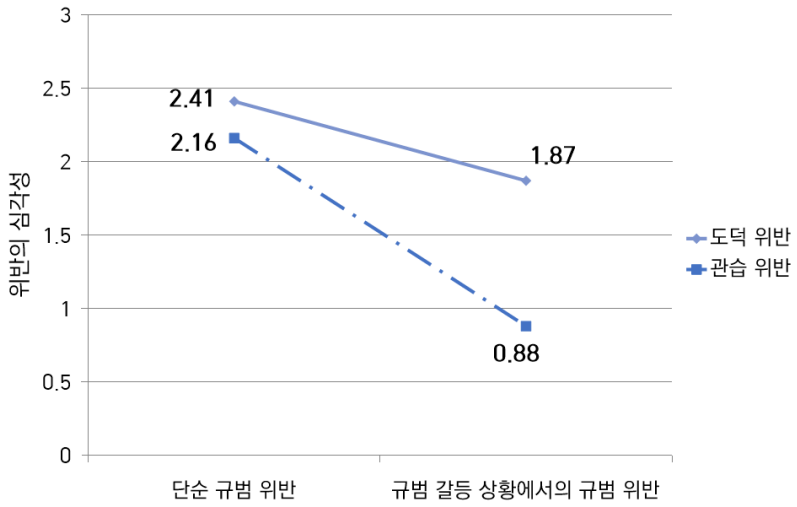
<표 5-21> 속성, 영역, 연령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영역	속성	3세 *M* (*SD*)	4세 *M* (*SD*)	5세 *M* (*SD*)	연령 평균 *M* (*SD*)
도덕 위반	단순 규범 위반	2.35 (0.71)	2.41 (0.69)	2.46 (0.42)	2.41 (0.05)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2.11 (0.71)	2.15 (0.89)	2.23 (0.78)	2.16 (0.07)
관습 위반	단순 규범 위반	1.67 (1.08)	1.89 (0.87)	2.05 (0.60)	1.87 (0.88)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0.98 (0.93)	0.79 (0.93)	0.88 (0.87)	0.88 (0.91)
영역 평균	단순 규범 위반	2.01 (0.72)	2.15 (0.60)	2.26 (0.42)	2.14 (0.60)
	규범 갈등 상황에서 규범 위반	1.55 (0.58)	1.47 (0.70)	1.55 (0.68)	1.52 (0.65)

<표 5-22>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속성, 영역, 연령의 효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피험자 간	연령	1.65	2	0.82	0.75	.00
	오차	154.93	141	1.10	-	-
피험자 내	영역	119.17	1	119.17	264.63***	.21
	오차	63.50	141	0.45	-	-
	속성	54.39	1	54.39	115.41***	.10
	오차	66.45	141	0.47	-	-
	연령×영역	0.08	2	0.04	0.09	.00
	영역×속성	19.88	1	19.88	33.57***	.04
	오차	83.48	141	0.59	-	-
	연령×속성	1.66	2	0.83	1.76	.00
	속성×영역×연령	1.65	2	0.82	1.39	.00

***$p < .001$.



<그림 5-7> 사회도덕적 사건의 위반의 심각성: 속성, 연령 상호작용

속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가 영역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2(속성)×2(영역)×3(연령)의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22>와 같다. 분석 결과, 속성의 주효과(F = 115.41, p < .001)와 영역×속성 상호작용 효과(F= 33.57,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연령×속성 상호작용과 연령×영역×속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속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은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규범 위반보다 단순 규범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변량의 약 10%를 설명하였다(η^2 = .10).

한편, 영역×속성 상호작용은 이처럼 규범 갈등 상황 때문에 위반 행동을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위반된 규범의 영역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관습 위반은 그것이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것일 때 유아가 판단한 위반의 심각성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도덕 위반은 이에 비해 변화의 폭이 작았다. 이러한 속성과 영역의 상호작용은 전체 허용 비율 변량의 약 4%를 설명하였으며(η^2 = .04),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5-7>과 같다. 영역별로 속성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11] 갈등하는 관습적 규범의 유무는 도덕 위반의 심각성 판단을 약 7%

설명했지만(η^2 = .07), 갈등하는 도덕적 규범의 유무는 관습 위반의 심각성 판단을 약 41% 설명하였다(η^2 = .41).

이와 같은 결과는 허용 비율과 동일한 맥락에서 3-5세 유아가 위반이 발생한 맥락, 즉 규범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위반 행동에 관한 판단을 더 관대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판단 변화의 폭은 특히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관습 위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3-5세 시기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위반의 심각성 판단을 수정하고, 도덕 위반보다 관습 위반에 대해 더 큰 폭으로 판단을 수정하는 양상이 연령에 따라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정당화 진술

같은 위반 사건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일 때 유아의 정당화 진술의 차이를 영역에 따라 살펴본 것은 <표 5-23>과 같다. 주변 동질성 검정 결과,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유아의 정당화 진술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일 때 서로 다르지 않았다. <그림 5-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두 속성에서 모두 유아는 도덕적 정당화 진술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단순 규범 위반일 때 46.5%, 규범 갈등 상황일 때 45.3%). 다음으로 기타 정당화 진술을 많이 하였다(단순 규범 위반일 때 32.1%, 규범 갈등 상황일 때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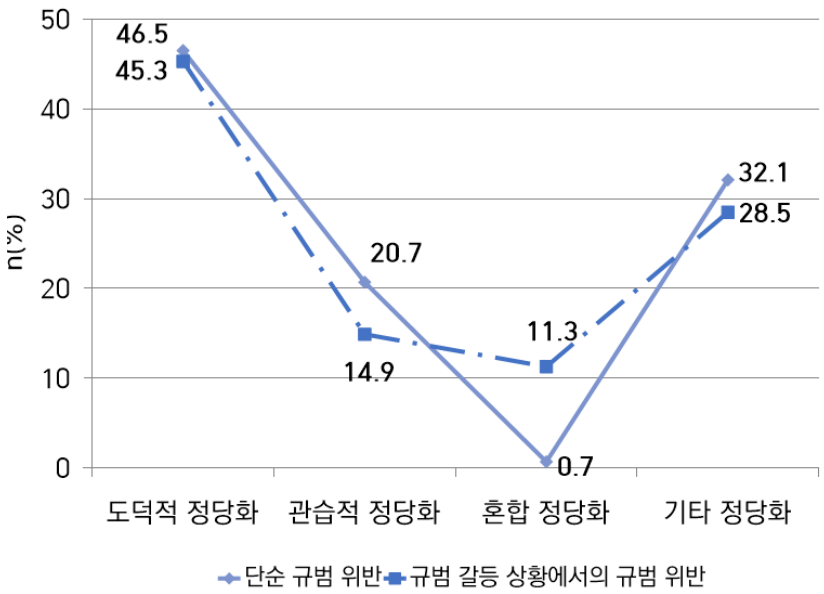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도덕 위반에서 사건 속성에 따른 정당화 진술의 차이가 나타나고($p < .05$) 관습 위반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영역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그림 5-9>을 통해 살펴보면, 관습 위반은 단순 규범 위반일 때도 도덕적 진술이 상당한 빈도로 나타났기 때문에(24.0%) 갈등하는 도덕적 규범이 등장했을 때도 진술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도덕 위반의 경우 단순 규범 위반일

11) 사건별, 영역별로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속성의 효과를 확인하고 속성·영역 상호작용, 속성·연령 상호작용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부록의 표 9, 표 10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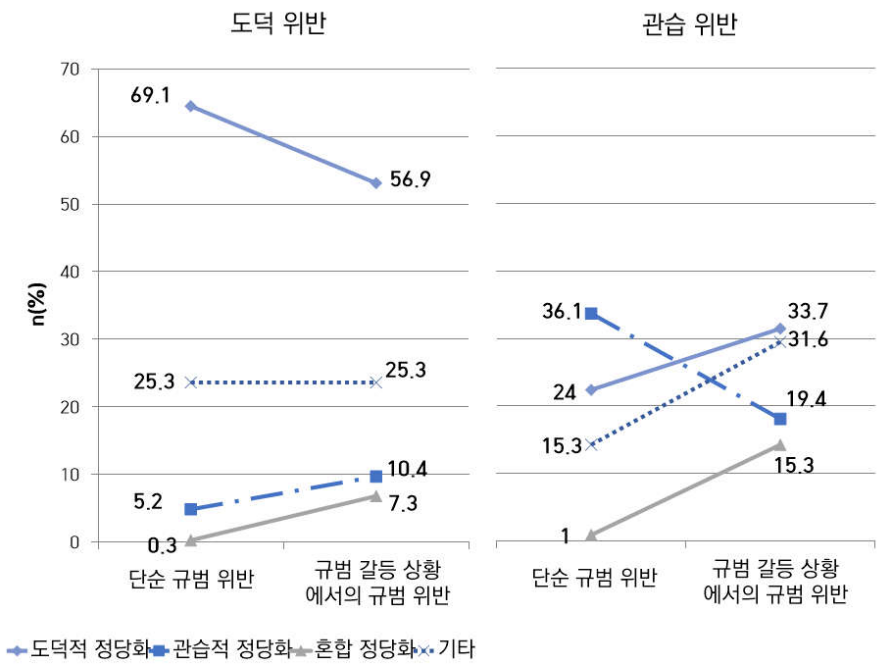
<표 5-23> 사회도덕적 사건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영역의 효과

	도덕 위반 (N = 288)		관습 위반 (N = 288)		영역 합계 (N = 576)	
	단순 n (%)	규범갈등 n (%)	단순 n (%)	규범갈등 n (%)	단순 n (%)	규범갈등 n (%)
도덕적 정당화	199 (69.1)	164 (56.9)	69 (24.0)	97 (33.7)	268 (46.5)	261 (45.3)
관습적 정당화	15 (5.2)	30 (10.4)	104 (36.1)	56 (19.4)	119 (20.7)	86 (14.9)
혼합 정당화	1 (0.3)	21 (7.3)	3 (1.0)	44 (15.3)	4 (0.7)	65 (11.3)
기타 정당화	73 (25.3)	73 (25.3)	112 (38.9)	91 (31.6)	185 (32.1)	164 (28.5)
주변동질성 검정	224.00*		414.00		638.00	

***p < .001.



<그림 5-8>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그림 5-9>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영역별 양상

때엔 도덕적 진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69.1%) 관습적 진술은 매우 소수였는데(5.9%), 규범 갈등 상황일 때는 새로 등장한 관습적 규범에 대한 언급이 늘었기 때문에 속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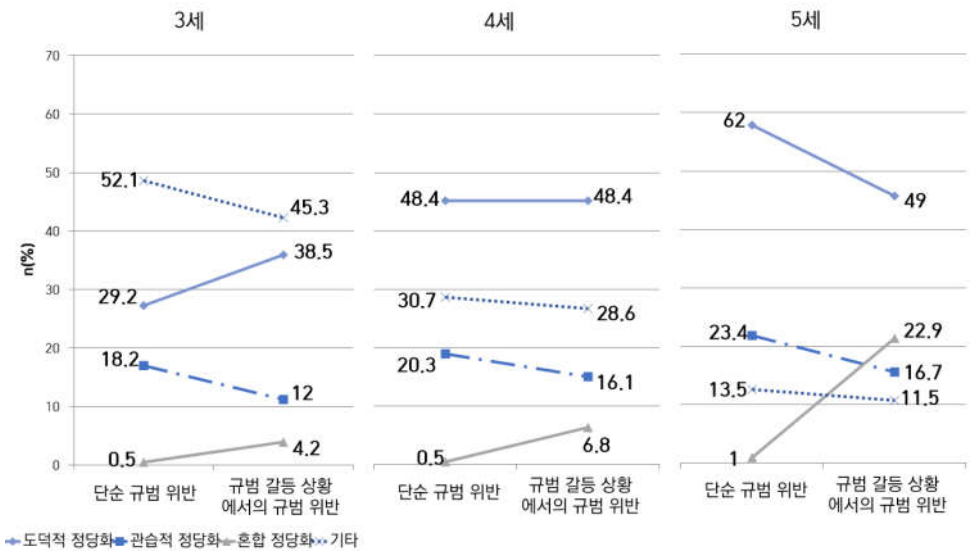
한편, 사건 속성에 따른 정당화 진술의 양상을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24> 및 <그림 5-10>과 같다. 연령에 따라 주변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3, 4세 유아와 달리 5세 유아는 사건 속성에 따라 정당화 진술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3, 4세 유아에 비해 5세 유아는 위반 사건이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때 혼합 정당화 진술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도덕적 진술은 큰 폭으로 줄었다. 즉 3, 4세 유아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도덕적 또는 관습적 영역 중 하나만 언급하는 경

12) 사건별 정당화 진술의 범주별 비율과 속성에 따른 차이는 부록의 표 11에 제시하였음.

<표 5-24> 사회도덕적 사건의 정당화 진술: 빈도분석 및 연령의 효과

	3세 (N = 192)		4세 (N = 192)		5세 (N = 192)	
	단순 n (%)	규범갈등 n (%)	단순 n (%)	규범갈등 n (%)	단순 n (%)	규범갈등 n (%)
도덕적 정당화	56 (29.2)	74 (38.5)	93 (48.4)	93 (48.4)	119 (62.0)	94 (49.0)
관습적 정당화	35 (18.2)	23 (12.0)	39 (20.3)	31 (16.1)	45 (23.4)	32 (16.7)
혼합 정당화	1 (0.5)	8 (4.2)	1 (0.5)	13 (6.8)	2 (1.0)	44 (22.9)
기타 정당화	100 (52.1)	87 (45.3)	59 (30.7)	55 (28.6)	26 (13.5)	22 (11.5)
주변동질성 검정	251.00		205.00		182.00**	

***p < .001.



<그림 5-10> 속성에 따른 사회도덕적 사건 정당화 진술: 연령별 양상

우가 많아 단순 규범 위반에 대한 정당화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5세 유아는 규범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갈등하는 두 규범을 모두 언급하는 혼합 진술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단순 규범 위반에 관한 정당화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에 관한 판단의 차이에서 속성과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는 허용 여부와 위반의 심각성 측면에서 갈등하는 규범을 고려하여 위반 행동에 대해 덜 엄격한 판단을 하였다. 이때 도덕 위반이 관습적 규범 준수를 위한 것이었을 때에는 판단 수정의 정도가 비교적 작았으나, 관습 위반이 도덕적 가치를 위한 것이었을 때에는 판단 수정의 정도가 컸다. 또한, 도덕 위반은 규범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다른 영역에 대한 언급(즉, 관습적 규범)이 늘어나면서 정당화 진술도 달라졌지만, 관습 위반은 단순 규범 위반일 때에도 이미 도덕적 진술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도덕적 규범의 맥락이 새롭게 주어져도 이로 인한 정당화 진술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즉 3-5세 유아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고수하고 관습적 규범을 유연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유능한 도덕적 존재로서 유아기 초기부터 도덕적 고려사항을 비도덕적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둔다는 주장(Nucci,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유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하는 규범 때문에 위반을 허용하게 되는 정도가 더 컸다. 또, 3, 4세 유아와 다르게 5세 유아는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을 때 등장하는 두 규범을 모두 언급하는 혼합 진술을 많이 하여,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비교해보면 정당화 진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위반 행동을 판단할 때 갈등하는 규범을 더 많이 고려하며, 판단의 근거도 규범 갈등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진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3-5세 유아가 보이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도덕 위반과 관습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규범이 갈등할 때 유아가 어떤 규범을 상위 원칙으로 고려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에 관한 판단을 비교하여,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규범 갈등 상황으로 인해 바뀌는지, 또 그 변화의 정도가 준수되거나 위반되는 규범의 영역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부 연구에서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이론적 논의(Miller, 1994; Graham et al., 2013)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인적 의무를 중심으로 관습을 다시 분류하고 3, 4, 5세 유아가 대인관습의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한 국내·외의 연구가 대부분 단순 규범 위반에 초점을 두었으며, 규범 간 갈등을 다룬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는 관습적 규범에 대한 유아의 판단만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도덕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과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모두 수집하고 둘을 비교함으로써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일관적으로 우위에 두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하는 다른 규범을 고려하여 위반 행동에 관한 판단을 수정하는 양상은 같은 위반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일 때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판단을 탐색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일 때 유아의 판단을 비교하고, 갈등하는 다른 영역의 규범을 고려하여 규범 위반에 대해 덜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정도가 규범의 영역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류층 어린이집 8곳에 다니는 3, 4, 5세 유아 총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회도덕적 사건 면접을 통해 단순 규범 위반과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에 관한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알아보았다. 이때 위반의 허용 여부와 심각성,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정당화 진술, 그리고 규범이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5세 유아는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을 구분했다. 유아는 도덕 위반을 대인,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더 허용할 수 없고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규범이 두 종류의 관습적 규범보다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인관습과 비대인관습 간 구분은 지표 대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 대인관습을 비대인관습과 구분하여 도덕적 규범과 유사한 정도로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는 도덕적 규범이 대인관습보다 더 권위,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인관습이 대인관습보다도 더 권위, 규칙에 독립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로 비대인관습의 실용성(예: 실내에서 신발을 벗지 않으면 실내가 더러워짐; 손으로 밥을 먹으면 밥이 더러워져서 몸이 아플 수 있음)이 권위, 규칙의 유무와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유아가 권위·규칙독립성의 측면에서 대인관습을 관

습적 규범과 구분하여 도덕적 규범과 더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아는 판단의 정당화 과정에서 대인관습 위반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진술을 비대인관습 위반보다 많이 하였다. 이는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이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결과, 즉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위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이 동반할 수 있는 도덕적 결과를 고려한 정당화 진술을 하는 동시에, 대인관습이 권위와 규칙에 의존하는 사회적 관습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관습 위반의 도덕적 결과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러한 관습적 규범을 도덕적 규범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동양 문화권의 유아가 관습적 위반의 도덕적 결과를 고려하여 관습을 도덕적 규범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연구(김상윤, 2000; 박영신, 2001, 2006; Naito, 1994), 집단주의 문화에서 대인적 의무가 도덕적 규범을 구성한다는 주장(Miller, 1994),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영역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박영신, 2006; 송명자, 1992)를 반박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박영신, 1999, 2001, 2006; 최보가, 송미화, 1998)와 다르게 권위, 규칙이 없는 상황을 그림카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가설적 상황에 대한 가정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권위·규칙독립성에서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에 관한 유아의 판단에서 차이가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 번의 면접에서 8개의 사건을 제시하고, 각 사건에 대해 4개 또는 6개의 준거에서 판단을 수집했기 때문에(박영신, 1999, 2001), 5개 사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3개의 준거 판단을 수집한 이 연구의 면접보다 면접 시간이 길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의 피로도가 응답에 영향을 미쳐 습관적인 응답을 불러일으키고, 위반 사건의 영역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권위에 대한 존경이 타고난 도덕적 직관 중 하나로 문

화적 맥락에 따라 도덕화될 수 있다는 주장(Graham et al., 2013)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대인적 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권리-기반 도덕과 대비되는 의무-기반 도덕을 구성한다는 주장(Miller, 1994)을 반영하여 대인관습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보다 덜 심각하고, 더 허용 가능하며, 도덕적 규범이 대인관습보다 더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인 규범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대인관습 위반과 비대인관습 위반에 관한 판단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증가하고 사회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차 더 대인관습을 도덕적 규범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아닌 보육기관 경험 기간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도 같았다. 이는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권위에 대한 존경과 관련된 규범이 도덕화될 수 있다는 주장(Graham et al., 2013),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구권과 달리 대인적 의무를 중심으로 도덕적 규범이 구성된다는 주장(Miller,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3-5세 유아는 사회적 경험과 비교적 무관하게 규범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위해와 배려, 공정성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인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범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이는 사회인지적 영역이론에서 제시한 영역 간 구분이 한국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의미한다.

둘째, 3-5세 유아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 유아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갈등할 때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은 허용하지 않지만 도덕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은 허용하여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더 우위에 두었다. 이는 두 종류의 규범이 모두 등장하는 사건에서도 유아가 위반되는 규범과 준수되는 규범이 각각 어떤 영역의 규범인지에 따라 사건을 구분하며, 사회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상위 원칙으로 고려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아의 응답은 도덕적 규범이 관습적 규범보다 인지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관습적 규범을 인지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이 준수되는 쪽이

옳다고 응답하였을 때, 실험자가 위반되는 관습적 규범의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뒤에도 유아의 응답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인 실험자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관습적 규범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유아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유아의 기존 판단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유아에게 도덕적 규범이 사회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아의 응답은 연령에 따라 일관적이었다. 즉, 3세에서 5세 사이 도덕적 규범의 우위가 유의하지 않거나, 반대로 관습적 규범의 우위가 나타난 연령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이해하고 도덕적 문제와 비도덕적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후기 청소년기가 되어야 나타난다고 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 이론(Kohlberg, 1971)을 반박한다. 영역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유아가 유능한 도덕적 존재로서 비도덕적 고려사항보다 도덕적 고려사항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Nucci, 2008), 실제로 대다수의 연구에서 검증한 것은 유아가 두 규범을 여러 다양한 준거에서 구분한다는 것이었으며 규범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상위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검증한 연구는 성-전형적 관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배제 상황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확인한 연구들을 제외하고는(최진아, 성지현, 2018; 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유아의 판단을 확인했을 때 유아가 일관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더 상위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우위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더해, 이러한 양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밝혀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우위가 3세부터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영아기 인지적, 행동적 도덕 지향을 밝힌 연구(Hamlin & Wynn, 2011; Hamlin et al., 2011; Hamlin, 2013; Sloane, Baillargeon, & Premack, 2012; Warneken & Tomasello, 2013, 2014) 및 학령기 아동

이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더 우선시한다는 보고(Helwig & Jasiobedzka, 2001; Killen, 1990; Laupa & Turiel, 1986)와 연결하면,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의 발달에서 도덕적 규범에 대한 지향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관습적 규범에 대한 상위 원칙으로서 도덕적 규범의 우위가 연령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보편적 정의를 타인에 대한 처우와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는 인지발달적 접근 및 관련된 철학적 전통을 지지한다(Nussbaum, 1999; Turiel, 2006). 도덕성을 사회적 항상성을 위한 모든 기제로 정의하거나(Damasio, 1994, 2003), 문화적 집단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련의 가치라고 정의하여(Haidt, 2001)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이 연구에서 밝힌 유아기의 일관적인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구분과 도덕적 규범의 상대적 우위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위반된 규범이 어떤 규범인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규범이 지켜지고 관습적 규범이 위반되는 쪽이 옳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유아가 규범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두 종류의 규범을 구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셋째, 3-5세 유아는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이 갈등할 때 도덕적 규범을 고수하고 관습적 규범은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했다. 유아의 위반 사건에 대한 사회도덕적 판단은 규범 갈등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판단이 바뀌는 정도는 도덕 위반보다 관습 위반에서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관습적 규범이 사회적 맥락에 비교적 의존적이며 도덕적 규범은 이에 비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영역 이론의 주장(Smetana, 2006; Turiel, 2006)과 일치한다. 이는 유아가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관습 준수의 가치를 포기하는 정도는 크지만, 반대로 관습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정도는 작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양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3세부터 규범 갈등이 있을 때 도덕적 규범을 관습적 규범보다 더 보편적으로 엄격하게 고수하는 양상이 5세 유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도덕적, 관습적 영역 모두에서 3-5세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이

규범 간 갈등을 고려하여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갈등하는 다른 규범이 있을 때 유아는 위반 행동이 더 허용할 수 있고 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규범 갈등 여부가 전체 변량의 약 41-44%를 설명하였다는 것은, 유아가 사회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위반 사건의 상황적 맥락을 상당 부분 고려함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과 아동의 도덕 판단이 위반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Tisak et al., 2006; Wainryb, 1991)와 유사한 맥락이다. 유아의 사회도덕적 이해가 주어진 규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면(Piaget, 1932; Kohlberg, 1971) 이와 같은 맥락에 따른 판단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더욱 큰 틀에서 사회도덕적 행위에 관한 판단에는 정보적 가정(informational assumption)이 수반되며, 사회도덕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덕적, 비도덕적 고려사항을 조정해야 한다는 도덕 판단에 대한 인지발달적 접근(Turiel, 2006; Wainryb, 1991)을 지지하는 결과로, 모든 도덕 판단이 직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인지적 추론은 이미 이루어진 도덕 판단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주장한 사회적 직관주의(Haidt, 2001, 2008)의 이론적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맥락에 따른 사회도덕적 판단의 변화를 밝힌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습 위반에 관한 판단이 도덕 위반에 관한 판단보다 더 맥락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넷째, 3세에서 5세 사이 유아는 사회도덕적 규범 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지며, 사회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더 정교하게 진술하고, 위반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을 더 유연하게 수정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는 위반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허용할 수 없고 더 심각한 위반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전반적인 규범 위반의 허용 비율은 3, 4, 5세가 모두 유의하게 달랐으며 위반의 심각성에서도 3, 5세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위반 사건에 대한 미분화된 진술이나 사건과 무관한 진술은 줄어들고 위반된 규범을 토대로 한 진술은 증가하였다.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에 관한 유아

의 진술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합 진술이 많아졌다. 혼합 진술은 갈등하는 두 규범을 모두 언급하는 진술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정교해지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사고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위반 행동이 단순 규범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것일 때 허용 비율의 변화 폭은 3세보다 4, 5세가 더 컸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위반 행동에 관해 판단할 때 위반의 맥락, 즉 갈등하는 다른 규범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도덕적 규범에 대한 학습과 강화가 반복되어 유아가 전반적으로 규범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유아기 초기부터 도덕적 규범과 관습적 규범의 구분이 나타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판단의 내용적 측면에서 점차 더 정교한 사고가 나타난다는 것(Smetana, 2006; Turiel, 1983, 2006)과 같은 맥락에서, 위반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가 점점 더 정교한 판단의 근거를 진술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의 수정도 더 큰 폭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화 진술은 사회도덕적 추론 내용을 유아가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연령에서는 표현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의 진술이 사회도덕적 추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화 진술의 정교화가 곧 사회도덕적 판단의 정교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아의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는 4세를 전후로 급격히 발달한다. 연령에 따른 발달이 영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경우, 이는 대체로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의 발달에 기인하였다. 3세 유아는 대인관습 위반에 대한 허용 비율이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아 대인관습의 강제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세가 되면 대인관습 위반의 허용 비율이 급감하고, 이것이 심각한 위반이라는 판단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연령차는 도덕 위반이나 비대인관습 위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유아기에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폭이 다른 규범에 비해 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습에 대한 유아기 이해의 발달은 정당화 진술에서의 응답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 위반에 대해서는 도덕적 진술만이 증가했지만 대인관습위반에 대해서는 관습적, 도덕적 진술이 둘 다 증가하였고 진술 빈도도 유사하였다. 이는 대인관습이 정당화되는 이유에 대해 유아의 관습적 이해와 도덕적 이해가 비슷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대인관습 위반의 도덕적 결과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비대인관습보다 대인관습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유아가 대인관습의 도덕적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과제로 제시된 대인관습(선생님에게 존댓말 하기, 친구가 인사하면 응하여 인사하기)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라는 점을 점차 더 확실하게 수용하게 되면서 이것을 어기는 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세를 전후로 대인, 비대인 관습에 대한 허용 비율이 교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 중에서도 실용적인 근거가 있는 비대인관습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속으로서 존재하는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대인관습 이해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을 해석할 때에는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모두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하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습은 보육 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관습적 규범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닌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대인관습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관 경험이 적은 유아를 포함하면 대인관습 이해의 발달이 이 연구에서 밝힌 것보다 더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의의 및 제언

이 절에서는 연구의 학문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를 제시하고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사회인지적 영역 이론에서 규정한 도덕-관습 영역 간 구분에 대해 제기된 이

론적 논쟁과 관련하여, 영역 이론을 지지하는 일련의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도덕-관습 간 구분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 연구에서 주목한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선행 연구의 제언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관습을 대인적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판단을 확인한 결과, 3-5세 유아가 대인관습의 도덕적 결과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도덕적 규범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영역 이론에서 제시한 규준에 따라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일관적으로 구분함을 밝혔다. 더불어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한 유아의 판단을 확인함으로써 유아가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상위의 원칙으로 고려하고, 맥락에 따라서 관습적 규범을 도덕적 규범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함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영역 이론이 제시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의 구분이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아가 지닌 관습적 규범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우위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양상에서 3-5세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유아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며 도덕적 규범에 우위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는 타인에 대한 처우와 공정성에 관한 원칙을,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사회적 관습보다 더 중대하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습을 대인적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아가 대인관습 위반을 도덕 위반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점, 관습 준수 도덕 위반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 준수 관습 위반을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갈등하는 도덕적 규범 때문에 관습 위반에 대한 판단은 큰 폭으로 바뀌지만 갈등하는 관습적 규범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연구가 새롭게 밝힌 점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 판단을 측정할 때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권위,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유아의 판단을 연속적인 척도로 수집

함으로써 유아의 권위, 규칙독립성 판단을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 권위, 규칙독립성 측면에서 유아가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권위자의 감독과 기관 규칙이 없는 가설적 상황을 언어적으로만 전달하거나 유아의 응답을 이분법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유아에게 시각적 자료를 통해 가설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추상적 사고의 한계로 인해 유아가 권위,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인지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권위, 규칙독립성에 대한 응답을 3점 척도로 수집하여 응답의 차이를 더 면밀하게 반영하였다. 그 결과 유아가 권위, 규칙독립성 측면에서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함을 밝혔다.

둘째, 도덕적, 관습적 규범 간 우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기존에 유아기 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을 확인한 연구가 특정한 관습(성 전형적 관습)을 지키기 위한 특정한 도덕 위반(사회적 배제)을 과제로 하여 유아의 판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관습적 규범보다 도덕적 규범을 우선시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도덕적 규범으로는 '밀치지 않기', '친구 물건을 가져오지 않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 관습적 규범으로는 '실내에서 신발 벗기', '수저로 밥 먹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기', '친구의 인사에 응하기' 등 다양한 규범을 활용하여 총 4개의 규범 갈등 상황을 구성하였으므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영역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관습 준수를 위한 도덕 위반뿐 아니라 도덕 준수를 위한 관습 위반 사건을 구성하고, 전자는 불허하는 반면 후자는 허용하는 유아의 판단을 확인하였으므로 위반되는 규범의 영역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도덕적 규범의 우위를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규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판단을 살펴본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같은 위반 행동이 단순 규범 위반일 때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것일 때를 설정함으로써 맥락 유무에 따라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영역 간 갈등이 있을 때 사회도덕적 판단을 조정하는 양상이 특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Smetana, 2006). 그러나 유아가 규범 갈등 상황에서 사회도덕적 판단을 조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 비교 가능한 과제를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조정 과정을 검증한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도덕적 규범을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엄격히 고수하는 정도를 확인할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방법론적 의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유아기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유아는 어린 시기부터 도덕적, 관습적 규범을 구분하며 도덕적 규범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기 인성교육에 있어 유아가 지니는 일관적인 도덕적 지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육현장에서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이 정당화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지닌 도덕적 지향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고려한 정교한 사회도덕적 추론 능력이 입증되었으므로, 다양한 규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사회도덕적 판단을 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아기 인성교육을 통해 유아의 도덕적 지향을 활용하여 사회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한 연령별 자료를 비교하여 발달적 함의를 얻고자 한 연구로, 동일 집단을 추적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발달을 검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발달적인 해석은 조심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권위·규칙독립성 판단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같은 문제에 대하여 종단적 설계로 검증한 연구(Smetana et al., 2012)에서는 6개월 단위로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한 다양한 개인적 변인(양육 환경 등)을 종단연구설계를 통해 통

제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발달적 차이에 관한 결과가 불일치할 때에는 종단연구설계의 결과가 더 엄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연령차를 규명하지 못한 도덕적 규범의 우선시 양상이나 사회도덕적 판단의 맥락 의존성 등에 대하여 종단연구설계를 통해 발달적 변화를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로 제한되었고 연구 도구로 활용한 사회도덕적 사건 역시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기관 경험이 없는 유아에게는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기관 경험이 없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을 탐색하고 기관 경험에 따른 판단의 차이 등을 분석한다면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의 발달에서 사회화 경험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 제한점이다. 이 연구는 규범의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규범이 사회 관습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권위에 해당하는 교사의 감독과 규칙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규칙은 유아에게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상황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을 구분하여 유아의 판단을 탐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 1명이 모든 유아를 면접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면접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연구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이 연구의 결과가 반복된다면 연구의 결과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사건의 속성과 규범의 영역에 따른 유아의 판단 차이를 밝히는 것을 주된 연구문제로 하였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된 지표를 주로 활용하였다. 판단의 질적인 수준은 정당화 진술의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양적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질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사회도덕적 규범에 대한 유아의 정당화 진술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제 상황

을 관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아의 사회도덕적 규범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유아의 사회도덕적 판단에 대해 더욱 정교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상윤 (2000). 인지발달과 영역구분이론에 의한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 1-26.

남덕현, 김차용 (1993). 반복측정 자료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69*(2), 191-200.

박영신 (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1-23.

_____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83-104.

_____ (2006). 유아들의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39-53.

박용규, 송혜향 (1991). *반복측정 자료의 분산분석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송명자 (1992).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영역구분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65-80.

송명자, 김상윤 (1987). 아동의 도덕사태판단에 있어서 사회 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140-149.

오영희, 박영신 (1998). 도덕적 규칙과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 *인문논총, 13.* 175-190.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보가, 송미화 (1998).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4), 49-62.

최진아, 성지현 (2018).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19-138.

Abdi, H. (2010). The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In Neil Salkind (Ed.), *Encyclopedia of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Ball, C. L., Smetana, J. G., & Sturge-Apple, M. L. (2017). Following My Head and My Heart: Integrating Preschoolers' Empathy, Theory of Mind, and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88*(2), 597-611.

Bersoff, D. M., & Miller, J. G. (1993). Culture,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accountability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64-676.

Carson, A. S., & Banuazizi, A. (2008). "That's Not Fa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between American and Filipino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4), 493-514.

Crane, D. A., & Tisak, M. S. (1995). Mixed-domain events: The influence of moral and conventional componen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reason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2), 169-180.

Damasio, A. R. (2003). Feelings of emotion and the self.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01*(1), 253-261.

_____. (1994). *Descartes'Error: Emotion, Rationality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utnam.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Davidson, P., Turiel, E., & Black, A. (1983). The effect of stimulus familiarity on the use of criteria and justifications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65.

Dworkin, R. M. (1977). *The Philosophy of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Emde, R. N. (1988). Development terminable and interminable. I. Innate and motivational factors from inf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9*, 23-42.

_____, Biringen, Z., Clyman, R. B., & Oppenheim, D. (1991). The moral self of infancy: Affective core and procedural knowledge. *Developmental Review, 11*, 251-27

_____, & Buchsbaum, H. K. (1990). "Didn't you hear my mommy?" Autonomy with connectedness in moral self-emergence. In D. Cicchetti & M. Beeghly (Eds.), *Development of the Self Through the Transition* (pp. 35-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agan III, J. F. (1978). Facilitation of infants' recognition memory. *Child Development, 49*(4), 1066-1075.

Gewirth, A. (1978). *Reason and Mor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

Habermas, J.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MA: MIT press.

Hadit, J. (2008). Mor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1), 65-72,

_____.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Hagen, J. W., & Kail Jr, R. V. (1973). Facilitation and distraction in short-term memory. *Child Development, 44*(4), 831-836.

Hamlin, J. K. (2013). Moral Judgment and Action in Preverbal Infants and Toddlers Evidence for an Innate Moral Co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 186-193.

_____, & Wynn, K. (2011). Young infants prefer prosocial to antisocial others. *Cognitive Development, 26,* 30-39.

_____, Wynn, K., Bloom, P., & Mahajan, N. (2011). How infants and toddlers react to antisocial oth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 19931-19936.

Helwig, C. C., & Jasiobedzka, U. (2001).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Children's reasoning about socially beneficial and unjust laws. *Child Development, 72*(5), 1382-1393.

_____, & Turiel, E. (2011). Children's social and moral reasoning. In Peter K. Smith & Craig H. Hart (Eds.).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nd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Hollos, M., Leis, P. E., & Turiel, E. (1986). Social reasoning in Ij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igerian commun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3), 352-374.

Jambon, M., & Smetana, J. G. (2018).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totypical moral and conventional judgments and children's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9*(4), 1343-1359.

Killen, M. (1990). Children's evaluations of morality in the context of

peer, teacher-child, and familial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1*(3), 395-410.

_____, McGlothlin, H., & Lee-Kim, J. (2002). Between individuals and culture: Individuals' evaluations of exclusion from social groups. In H. Keller, Y. Poortinga, & A. Schoelmerich (Eds.). *Between Biology and Culture: Perspectives on Ontogenetic Develop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Pisacane, K., Lee-Kim, J., & Ardila-Rey, A. (2001). Fairness or stereotypes? Young children's priorities when evaluating group exclusion and inclu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587-596.

_____, & Smetana, J. 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2), 486-501.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2), 325-347.

Kohlberg, L. (1971). Stages of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1*, 23-92.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 159 - 174.

Laupa, M., & Turiel, E.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2), 405-412.

Miller, J. G. (199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morality of benefic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n S. Ting-Toomey & F. Korzenny (Eds.),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Vol. 15. Cross-cultur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11-27).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_____. (1994). Cultural diversity in the morality of caring: Individually oriented versus duty-based interpersonal moral codes. *Cross-Cultural Research, 28*, 3-37.

_____. & Bersoff, D. M. (1992). Culture and moral judg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541-554.

Naito, T. (1991). Kodomo, shakai, bunka [Children, society, and culture]. Tokyo: Saiensusha.

_____. (1994). A survey of research on moral development in Japan. *Cross-Cultural Research, 28*(1), 40-57.

Nam, K-A. (2015). High-context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In J. M. Bennett (Ed.). *The SAG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Competen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Nisan, M. (1984). Content and structure in moral judgment: An integrative view.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208-224).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_____. (1987). Moral norms and social conventions: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719-725.

Nucci, L. P. (2008). Social cognitive domain theory and moral education. In Larry P. Nucci, Tobias Krettenauer, & Darcia Narvaez (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London: Routledge.

_____,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1), 114-121.

_____,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2), 400-407.

_____, Turiel, E., & Encarnacion-Gawrych, G. (1983).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concepts: Analyses of morality and convention in the Virgin Islan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4), 469-487.

_____, Camino, C., & Sapiro, C. M. (1996). Social class effects on northeastern Brazilian children's conceptions of areas of personal choice and social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67*(3), 1223-1242.

Nussbaum, M. C. (1999). *Sex and Soci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iaget, J. (1932). *The Moral Develop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heskin, D. J. (2003). *Handbook of nonparamatic statistical procedures*. Boca Raton: CRC Press.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90).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W. Stigler, R. A. S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pp. 130-204). Camb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loane, S., Baillargeon, R., & Premack, D. (2012). Do infants have a sense of fairness?. *Psychological Science, 23*(2), 196-204.

Smetana, J. 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4), 1333-1336.

_____ (1985).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transgressions: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attrib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8-29.

_____ (2006). Social - cognitive domain theory: Consistencies and variations in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Melanie Killen & Judith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Psychology Press.

_____ (2013). Moral development: The social domain theory view. In P. D. Zelazo (Ed). *The Oxfor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 Braeges, J. L. (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ments. *Merrill - Palmer Quarterly, 36*(3), 329-346 .

_____, Jambon, M., & Ball, C. (2014). The social domain approach to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23-45).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_____, Rote, W. M., Jambon, M., Tasopoulos-Chan, M., Villalobos, M., & Comer, J. (2012). Developmental chang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83*(2), 683-696.

_____, J. G., Schlagman, N., & Adams, P. W.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4*(1), 202-214.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582.

Stuart A. (1955). A test for homogeneity of the marginal distributions in a two-way classification. *Biometrika, 42,* 412-416.

Sun, X., & Yang, Z. (2008). Generalized McNemar's test for homogeneity of the marginal distributions. *SAS Global Forum, 382,* 1-10.

Tesch, R. (1990). *Qualitatve Research: Analysis Types & Software Tools.* Bristol, PA: Falmer Press.

Tisak, M. 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s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352-357.

_____, Tisak, J. & Goldstein, S. E. (2006). Aggression, delinquency, and morality: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611-62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Theimer, C. E., Killen, M., & Stangor, C. (2001). Young children's evaluations of exclusion in gender-stereotypic peer contexts.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18-27.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6). Thought, emotions, and social interactional processes in moral development.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_____ (2008a).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William Damon & Richard M. Lerner (Eds.),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 advanced cours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_____ (2008b). Thought about actions in social domains: Morality, social conventions, and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23*(1), 136-154.

_____ (2015). Morality and prosocial judgments. In David A.

Schroeder & William G. Graziano (Ed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137-15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inryb, C. (1991).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The role of informational assumptions. *Child Development, 62*(4), 840-851.

Warneken, F., & Tomasello, M. (2013). Parental presence and encouragement do not influence helping in young children. *Infancy, 18,* 345-368.

_____, & Tomasello, M. (2014). Extrinsic rewards undermine altruistic tendencies in 20-month-olds. *Motivation Science, 1,* 43-48.

Weston, D. R., & Turiel, E. (1980). Act - rule relations: Children's concepts of social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5), 417-424.

Witherell, C. S. & Edwards, C. P. (1991). Moral versus social-conventional reasoning: A narrative and cultural critiqu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3), 293-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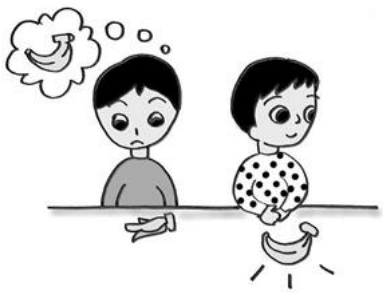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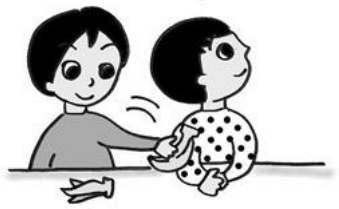
Yau, J., & Smetana, J. G. (2003). Conceptions of moral, social 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

< 부 록 >

◎ 단순 규범 위반 그림카드 (남아용)

-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욕구-위반 카드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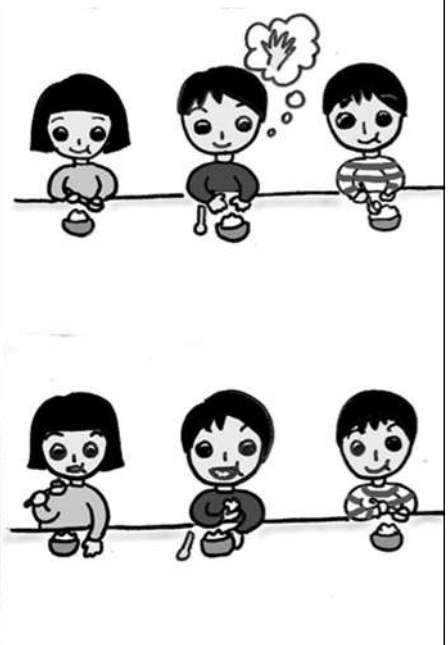
○ 도덕 위반

밀기 (a)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 (b)
	
	

○ 대인관습 위반

선생님께 반말하기 (c)	친구 인사 무시하기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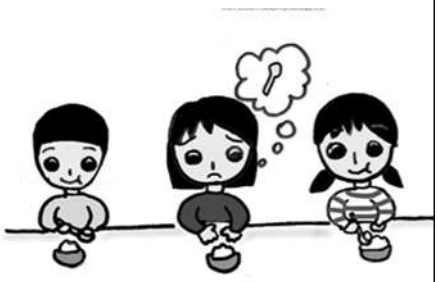
○ 비대인관습 위반

실내에서 신발 신기 (e)	손으로 식사하기 (f)
	

◎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규범 위반 그림카드 (여아용)

-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맥락-위반 카드를 나타냄.

○ 관습 준수 도덕 위반

관습 준수 - 밀기 (A)	관습 준수 - 친구 물건 몰래 가져오기 (B)
 	

○ 도덕 준수 관습 위반 사건

도덕 준수 - 친구 인사 무시하기 (D)	도덕 준수 - 실내에서 신발 신기 (E)

[부록] 표 1. 단순 규범 위반 허용 비율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도덕(A)	대인관습(B)	비대인관습(C)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개체-내 대비검정
	M (*SD*) *t*	*M* (*SD*) *t*	*M* (*SD*) *t*					
3세(a)	.13 (.22) -11.87***	.48 (.36) -0.41	.34 (.35) -3.14**	3.07	2	1.53	22.99***	A < C < B
4세(b)	.04 (.14) -22.34***	.33 (.35) -3.33**	.24 (.31) -5.83***	2.13	1.62	1.31	15.30***	A < B , C
5세(c)	.00 (.00) -	.09 (.20) -14.27***	.18 (.28) -7.93***	0.75	1.48	0.51	9.45**	A < B , C
연령 평균	.06 (.16) -33.82***	.30 (.35) -6.87***	.25 (.32) -9.29***	4.91	1.80	2.73	39.93***	A < B , C
F (연령)	8.66***	19.02***	3.47*					
Scheffé (연령)	a > b , c	a , b > c	a , b > b , c					

Note. 5세는 모든 유아가 모든 도덕위반을 허용하지 않아 표준편차가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음.

***$p < .001$. *$p < .05$.

[부록] 표 2. 단순 규범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도덕(A) *M* (*SD*)	대인관습(B) *M* (*SD*)	비대인관습(C)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개체-내 대비검정
3세(a)	2.35 (0.71)	1.27 (0.93)	1.61 (1.09)	29.42	2	14.71	24.37***	A > C > B
4세(b)	2.41 (0.69)	1.57 (0.95)	1.79 (0.90)	17.9	1.73	10.35	29.42***	A > C > B
5세(c)	2.46 (0.42)	1.94 (0.70)	1.83 (0.83)	10.76	2	5.38	16.92***	A > B , C
연령 평균	2.41 (0.62)	1.59 (0.90)	1.75 (0.94)	53.70	1.89	28.38	51.72***	A > B , C
F (연령)	0.36	7.13**	0.72					
Scheffé (연령)	-	a, b < b, c	-					

**$p < .01$. *$p < .05$.

[부록] 표 3. 단순 규범 위반 권위·규칙독립성(허용 비율)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도덕(A)	대인관습(B)	비대인관습(C)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개체-내 대비검정
	M (SD)	M (SD)	M (SD)					
	t	t	t					
3세(a)	.36 (.37)	.70 (.35)	.64 (.37)	3.01	1.93	1.56	19.35***	A < B , C
	-2.55*	3.88***	2.55*					
4세(b)	.43 (.39)	.74 (.31)	.67 (.40)	2.57	1.97	1.30	22.19***	A < B , C
	-1.31	5.37***	2.86**					
5세(c)	.50 (.58)	.67 (.40)	.61 (.45)	0.70	1.54	0.45	2.63	-
	0.00	2.86**	1.76					
연령 평균	.43 (.46)	.70 (.36)	.64 (.41)	5.79	1.81	3.20	32.22***	A < C < B
	-0.07	6.78***	4.09***					
F (연령)	1.06	0.50	0.20					

***p < .001. *p < .05.

[부록] 표 4. 단순 규범 위반 권위·규칙독립성(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도덕(A) *M* (*SD*)	대인관습(B) *M* (*SD*)	비대인관습(C)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개체-내 대비검정
3세(a)	1.64 (1.07)	0.73 (0.93)	0.78 (0.86)	24.86	2	12.43	19.32***	A > B , C
4세(b)	1.39 (1.09)	0.57 (0.73)	0.74 (1.03)	17.68	2	8.84	22.78***	A > B , C
5세(c)	1.34 (1.23)	0.76 (1.03)	0.90 (1.13)	8.95	2	4.47	9.34***	A > B , C
연령 평균	1.45 (1.13)	0.69 (0.90)	0.81 (1.01)	49.17	1.84	26.74	48.72***	A > B , C
F (연령)	0.93	0.60	0.31					

***$p < .001$. *$p < .05$.

[부록] 표 5.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의 허용 비율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관습준수 도덕위반 *M* (*SD*) *t*	도덕준수 관습위반 *M* (*SD*) *t*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3세(a)	.10 (.21) -13.36***	.53 (.36) 0.60	4.38	1	4.38	54.90***
4세(b)	.15 (.29) -8.43***	.64 (.37) 2.55*	5.75	1	5.75	52.78***
5세(c)	.08 (.21) -13.45***	.57 (.39) 1.31	5.75	1	5.75	65.59***
연령 평균	.11 (.24) -19.46***	.58 (.37) 2.57*	15.82	1	15.82	137.29***
F (연령)	0.84	0.95				

***$p < .001$. *$p < .05$.

[부록] 표 6. 규범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의 심각성에서 영역과 연령의 주효과분석

	관습준수 도덕위반 *M* (*SD*)	도덕준수 관습위반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역)
3세(a)	2.11 (0.71)	0.98 (0.93)	30.94	1	30.94	43.82***
4세(b)	2.15 (0.89)	0.79 (0.93)	44.01	1	44.01	65.69***
5세(c)	2.23 (0.78)	0.88 (0.87)	44.01	1	44.01	102.20***
연령 평균	2.16 (0.79)	0.88 (0.91)	118.20	1	118.20	197.27***
F (연령)	0.27	0.51				

**$p < .01$. *$p < .05$.

[부록] 표 7. 사건별 허용 비율에서 속성의 주효과분석

영역	위반 규범	속성	M (SD)	t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도덕위반	밀기	단순 (a)	.00 (.00)	-	0.22	1	0.22	8.41**	-
		규범 갈등(A)	.06 (.23)	-23.20***					
	친구 물건 가져오기	단순(b)	.11 (.32)	-14.80***	0.22	1	0.22	2.15	-
		규범 갈등(B)	.17 (.39)	-10.70***					
	영역 평균	단순(a, b)	.06 (.16)	-33.82***	0.22	1	0.22	6.02*	.04
		규범 갈등(A, B)	.11 (.24)	-19.46***					
관습위반	친구의 인사 무시하기	단순(d)	.19 (.39)	-9.57***	12.50	1	12.50	62.72***	-
		규범 갈등(D)	.60 (.49)	2.55*					
	실내에서 신발 신기	단순(e)	.19 (.39)	-9.57***	9.75	1	9.75	50.27***	-
		규범 갈등(E)	.56 (.50)	1.34					
	영역 평균	단순(d, e)	.19 (.31)	-12.23***	11.08	1	11.08	98.81***	.41
		규범 갈등(D, E)	.58 (.38)	2.57*					
전체 평균		단순 (a, b, d, e)	.12 (.19)	-23.43***	3.61	1	3.61	101.11***	.41
		규범 갈등 (A, B, D, E)	.35 (.23)	-8.10***					

Note. t는 허용 비율을 우연수준(0.5)과 비교한 일표본 t검증 결과를 보고함.

***$p < .001$. **$p < .01$. *$p < .05$.

[부록] 표 8. 사건별 허용 비율에서 속성, 연령 상호작용

영역	위반 규범	속성	3세 *M* (*SD*)	4세 *M* (*SD*)	5세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η^2
도덕 위반	밀기	단순 (a)	.00 (.00)	.00 (.00)	.00 (.00)	.05	2	.02	0.92	-
		규범 갈등(A)	.02 (.14)	.08 (.28)	.06 (.25)					
	친구 물건 가져오기	단순(b)	.25 (.44)	.08 (.28)	.00 (.00)	.51	2	.25	2.50	-
		규범 갈등(B)	.19 (.39)	.21 (.41)	.10 (.31)					
	영역평균	단순(a, b)	.13 (.22)	.04 (.14)	.00 (.00)	.22	2	.11	3.00	.04
		규범 갈등(A, B)	.10 (.21)	.15 (.29)	.08 (.21)					
관습 위반	친구 인사 무시하기	단순(d)	33 (.48)	.21 (.41)	.02 (.14)	3.27	2	1.64	9.14***	-
		규범 갈등(D)	.48 (.51)	.65 (.48)	.69 (.47)					
	실내에서 신발 신기	단순(e)	.29 (.46)	.19 (.39)	.08 (.28)	.26	2	.13	0.66	-
		규범 갈등(E)	.58 (.50)	.63 (.49)	.46 (.50)					
	영역평균	단순(d, e)	.31 (.37)	.20 (.30)	.05 (.15)	1.17	2	.58	5.54**	.04
		규범 갈등(D, E)	.53 (.16)	.64 (.37)	.57 (.39)					
총 평균		단순 (a, b, d, e)	.22 (.23)	.12 (.19)	.03 (.08)	.57	2	.29	8.93***	.07
		규범 갈등 (A, B, D, E)	.32 (.22)	.39 (.24)	.33 (.23)					

Not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은 연령(3, 4, 5세)와 속성(단순/규범 갈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값임. ***$p < .001$. **$p < .01$.

[부록] 표 9. 사건별 위반의 심각성에서 속성의 주효과분석

영역	위반 규범	속성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도덕 위반	밀기	단순 (a)	2.65 (0.60)	2.53	1	2.53	5.57*	-
		규범 갈등(A)	2.46 (0.88)					
	친구 물건 가져오기	단순(b)	2.17 (1.01)	6.42	1	6.42	8.34**	-
		규범 갈등(B)	1.87 (1.08)					
	영역 평균	단순(a, b)	2.41 (0.05)	4.25	1	4.25	10.81**	.07
		규범 갈등(A, B)	2.16 (0.07)					
관습 위반	친구 인사 무시하기	단순(d)	1.71 (1.13)	61.42	1	61.42	48.23***	-
		규범 갈등(D)	0.89 (1.22)					
	실내에서 신발 신기	단순(e)	1.92 (1.14)	79.17	1	79.17	69.31***	-
		규범 갈등(E)	0.88 (1.13)					
	영역 평균	단순(d, e)	1.87 (0.88)	70.01	1	70.01	103.23***	.41
		규범 갈등(D, E)	0.88 (0.91)					
전체 평균		단순 (a, b, d, e)	2.14 (0.60)	27.20	1	27.20	114.20***	.44
		규범 갈등 (A, B, D, E)	1.52 (0.65)					

***$p < .001$. **$p < .01$. *$p < .05$.

[부록] 표 10. 사건별 위반의 심각성에서 속성, 연령 상호작용

영역	위반 규범	속성	3세 *M* (*SD*)	4세 *M* (*SD*)	5세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η^2
도덕 위반	밀기	단순 (a)	2.73 (0.64)	2.58 (0.65)	2.63 (0.49)	0.146	2	0.073	0.159	.002
		규범 갈등(A)	2.48 (0.80)	2.42 (0.94)	2.48 (0.90)					
	친구 물건 가져오기	단순(b)	1.98 (1.28)	2.23 (0.99)	2.29 (0.65)	0.194	2	0.097	0.125	.002
		규범 갈등(B)	1.75 (1.12)	1.88 (1.18)	1.98 (0.93)					
	영역 평균	단순(a, b)	2.35 (0.71)	2.41 (0.69)	2.46 (0.42)	0.012	2	0.006	0.015	.000
		규범 갈등(A, B)	2.11 (0.71)	2.15 (0.89)	2.23 (0.78)					
관습 위반	친구 인사 무시하기	단순(d)	1.65 (1.38)	1.83 (1.17)	1.96 (0.74)	6.861	2	3.431	2.761	.028
		규범 갈등(D)	1.13 (1.25)	0.85 (1.26)	0.69 (1.13)					
	실내에서 신발 신기	단순(e)	1.69 (1.31)	1.94 (1.12)	2.15 (0.92)	1.549	2	0.774	0.675	.006
		규범 갈등(E)	0.83 (1.16)	0.73 (1.09)	1.06 (1.14)					
	영역 평균	단순(d, e)	1.67 (1.08)	1.89 (0.87)	2.05 (0.60)	3.293	2	1.647	2.478	.020
		규범 갈등(D, E)	0.98 (0.93)	0.79 (0.93)	0.88 (0.87)					
총 평균		단순 (a, b, d, e)	2.01 (0.72)	2.15 (0.60)	2.26 (0.42)	0.829	2	0.415	1.760	.014
		규범 갈등 (A, B, D, E)	1.55 (0.58)	1.47 (0.70)	1.55 (0.68)					

Not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은 연령(3, 4, 5세)와 속성(단순/규범갈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값임.

[부록] 표 11. 사건별 정당화 진술의 범주별 비율과 속성에 따른 차이

영역	위반 규범	속성	도덕적 정당화 *n* (%)	관습적 정당화 *n* (%)	혼합 정당화 *n* (%)	기타 정당화 *n* (%)	주변 동질성 검정
도덕 위반	밀기 (*n*=144)	단순 (a)	115 (79.9)	4 (2.8)	1 (0.7)	24 (16.7)	95.00*
		규범 갈등(A)	92 (63.9)	10 (6.9)	14 (9.7)	28 (19.4)	
	친구 물건 가져오기 (*n*=144)	단순(b)	84 (58.3)	11 (7.6)	0 (0.0)	49 (34.0)	129.00
		규범 갈등(B)	72 (50.0)	20 (13.9)	7 (4.9)	45 (31.3)	
	영역 내 합계 (*n*=288)	단순(a, b)	199 (69.1)	15 (5.2)	1 (0.3)	73 (25.3)	224.00*
		규범 갈등(A, B)	164 (56.9)	30 (10.4)	21 (7.3)	73 (25.3)	
관습 위반	친구의 인사 무시하기 (*n*=144)	단순(d)	52 (36.1)	24 (16.7)	1 (0.7)	67 (46.5)	196.00
		규범 갈등(D)	49 (34.0)	18 (12.5)	26 (18.1)	51 (35.4)	
	실내에서 신발 신기 (*n*=144)	단순(e)	17 (11.8)	80 (55.6)	2 (1.4)	45 (31.3)	218.00
		규범 갈등(E)	48 (33.3)	38 (26.4)	18 (12.5)	40 (27.8)	
	영역 내 합계 (*n*=288)	단순(d, e)	69 (24.0)	104 (36.1)	3 (1.0)	112 (38.9)	414.00
		규범 갈등(D, E)	97 (33.7)	56 (19.4)	44 (15.3)	91 (31.6)	
영역 합계 (*N*=576)		단순 (a, b, d, e)	268 (46.5)	119 (20.7)	4 (0.7)	185 (32.1)	638.00
		규범 갈등 (A, B, D, E)	261 (45.3)	86 (14.9)	65 (11.3)	164 (28.5)	

Abstract

Young Children Prioritize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Lee, Suhyu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preschoolers distinguish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and what kind of norms they consider as priority rules in situations wher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conflict. Also, this study explored whether children differently compromise th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work, this study sought to shed light on the aspect of relative priorities between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sociomoral judgment.

Participants were 144 children in 3, 4, 5 years of age who were recruited from the mid-class area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sociomoral event interviews and analyzed in SPSS statistical package, us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one 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s a mixed model, chi-squared test, and marginal homogeneity 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distinguished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following the criterion suggested by socio-cognitive domain theory,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Children reported the moral transgressions are more impermissible and serious than personal and impersonal conventional transgressions. Also, they reported that moral norms are more independent from authority and rules than two types of conventional norms. However, they did not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and impersonal conventions in most indicators, and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y tend to recognize the violence of personal conventions as a moral transgression.

Second, children prioritized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ed,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this tendency. Children in all ages did not permit the mor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obey conventional norms, while they permitted the convention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uphold moral values. They also reported that moral transgressions occurred to obey conventional norms were more serious transgressions than conventional transgressions which protected moral values.

Third, children compromised conventional norms in a larger extent than moral norms when they conflicted each other, and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this tendency. Children's judgment was clearly more generous towar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protect moral values, whereas their judgment did not change much upon the moral transgressions that occurred to follow conventional norms.

Forth, older children were generally more strict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justified their judgment using more deliberate reasons, and considered the context of transgressions to a larger extent. Older children less permitted transgressions and thought the transgressions are more serious in all domains. Also, older children justified their judgment based on the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while irrelevant and unspecified justifications decreased with age. Four and 5-year-old children were more flexible in their sociomoral judg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f transgression, than 3-year-old children.

This study extends the current literature on preschool children's sociomoral judgment by demonstrating that children not only distinguish between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but also prioritize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and adhere to the moral norms than conventional norms when they conflict each other. Older children were generally more strict to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more deliberately justified their judgment, and were more flexibly changed their judgment considering the context, but the relative priority of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was regardless of age.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 distinguish moral norms from conventional nor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treatment to people rather than the interpersonal obligations and that from 3 years of age, children consistently hold priority on moral norms over conventional norms.

Keywords: Sociomoral judgment, socio-cognitive domain theory, moral norms, conventional norms, norm conflict